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Landscape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in Social Media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성 희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특성 분석

지도교수 손 용 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성 희

이성희의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송영근 

부위원장 이동근 

위 원 孫錦勳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성 희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2월

위 원 장 송영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위 원 김정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특성 분석

이 성 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손 용 훈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관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자연환경, 역사문화, 생활공간을 아우르는 경관계획 수립 및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으나 『경관법』은 도시지역의 경관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자연경관에 대한 경관평가 및 관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도시지역 경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관자원에 관한 연구도 현황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선정되고 평가되어 왔다. 또한 경관은 바라보는 대상과 주체, 체험활동 등 다양한 켜가 얽혀 형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어온 경관자원 연구는 시각적 자원에 국한되어 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람이 체험하는 경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경관연구를 실시하였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관사진과 함께 사진에 포함된 텍스트 및 방문자의 행태분석을 병행하여 다각도의 경관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경관계획 및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이에 대한 인식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통해 느낀점이나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타인과 공유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경관에서 활동하고 향유하며 체험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인스타그램에서 대중이 인식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을 도출하고, 사진과 함께 작성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경관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부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안경관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해안경관의 유형 및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안경관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해안경관의 개념 및 범위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차이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의 해안경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의의와 경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경관연구 분야에서 소셜미디어 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기존 경관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객의 인식을 파악해왔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계된 조사항목에 따라 피험자의 답변이 유도되는 한계가 발생되며, 방문객의 자유로운 의견을 취합하기 어렵다. 반면 소셜미디어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설계되지 않은 의견과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였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관련 게시물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주요 공간을 선정하였으며, 대표경관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표경관에 해당되는 사진에 함께 작성된 코멘트와 해시태그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주요 경관 및 활동과 선호요인을 정리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하며 어떤 자원과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6개의 구역이 방문객에게 주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대표경관은 31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31개의 대표경관에 대하여 방문객이 서술하고 있는 의견을 분석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넷째, 방문객의 경관인식과 주요 활동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기반한 경관 유형 분류 틀을 설정하고, 대표경관(CP)의 경관유형을 분류하였

다. 따라서 앞서 도출한 대표경관 31개에 대하여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 4가지의 경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6개의 구역이 대표성을 띠는 경관유형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을 어떻게 향유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행되어 오는 경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자원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체계적인 경관계획 및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대중이 인식하는 경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의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경관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으로써, 도출된 여섯 개의 주요 공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향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조성한 탐방로의 구간별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전역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체험에 기반 한 경관관리 방안 수립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경관자원, 대표경관(CP), 경관인식, 대중인식, 국립공원, 태안,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빅데이터

학 번 : 2016-24846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2절. 연구의 범위	04
1. 내용적 범위	04
2. 공간적 범위	04
3절. 연구의 방법	05
1. 연구의 방법	05
2.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06
3. 데이터 획득 및 처리	08
4절. 연구의 흐름	10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해안경관	11
1. 해안경관의 개념	11
2. 해안경관의 유형과 구성요소	14
2절. 소셜미디어	21
1. 빅데이터	21
2. 소셜미디어와 SNS의 개념 및 SNS의 발달과정	22
3. 소셜미디어의 의의	27
3절. 선행연구 검토	28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28
2. 연구의 착안점	35

제3장 대상지 분석 및 태안해안의 경관가치 변화

1절. 대상지 분석	37
1. 대상지 개요	37
2. 자연환경 분석	39
3. 인문환경 분석	42
2절.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가치 인식 변화	52
1.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52
2.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의 종합	59

제4장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경관자원 및 특성 분석

1절.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결과	60
1.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60
2. 경관분석을 위한 주요 공간 선정	66
2절. 소셜미디어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	69
3절. 텍스트 분석을 통한 방문객의 경관 인식 파악	77
1. 학ampo 구역	77
2. 신두리 구역	80
3. 천리포-만리포 구역	85
4. 몽산포-청포대 구역	90
5.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93
6. 꽃지 구역	95
4절. 주요 구역별 경관특성 분석	99
1. 학ampo 구역	101
2. 신두리 구역	103
3. 천리포-만리포 구역	105
4. 몽산포-청포대 구역	107
5.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109
6. 꽃지 구역	111

5절. 분석의 종합	113
1. 기존에 알려진 경관자원과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 비교	113
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유형 분포	114

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116
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4

■ 표 목차

[표 1-1] 연구의 흐름도	10
[표 2-1] 해안경관의 정의	13
[표 2-2] 관련 법규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15
[표 2-3] 관련 법규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계속)	16
[표 2-4] 관련 계획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17
[표 2-5] 관련 연구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18
[표 2-6] 해안경관 유형 분류의 종합	19
[표 2-7] 해안경관 유형과 대상지역	20
[표 2-8] 소셜미디어의 정의	22
[표 2-9] 소셜미디어의 분류와 대표 서비스	23
[표 2-10] SNS의 정의	24
[표 2-11] 해안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및 내용	30
[표 2-12]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및 내용	33
[표 3-1]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51
[표 3-2] 1940-80년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54
[표 3-3] 1980-2000년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56
[표 3-4] 2000년 이후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58
[표 4-1] 구역별 세부 장소	67
[표 4-2]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표경관(CP) 이미지	72
[표 4-3] 인스타그램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표경관(CP)	75
[표 4-4] 학암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79
[표 4-5] 신두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83
[표 4-6] 천리포-만리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경관	88
[표 4-7] 몽산포-청포대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경관	92
[표 4-8]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경관	94
[표 4-9] 꽃지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경관	97
[표 4-10] 경관유형 분류 틀	100
[표 4-11] 기존 경관자원과 방문객이 인식한 경관자원 비교	113
[표 4-1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유형 분류	114

■ 그림 목차

[그림 1-1]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과정	09
[그림 2-1] 경관의 형식	12
[그림 2-2] SNS의 발달과정	26
[그림 3-1] 대상지 개요	38
[그림 3-2] 태안반도 지형	39
[그림 3-3] 태안반도 수계	40
[그림 3-4] 주요 해수욕장 분포	40
[그림 3-5] 태안반도 식생	41
[그림 3-6] 태안반도 도로망	42
[그림 3-7] 토지이용현황	43
[그림 3-8] 건물 및 시설 현황	43
[그림 3-9]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44
[그림 3-10] 태안해변길 제1코스 바라길 구간과 주요 자원	45
[그림 3-11] 태안해변길 제2코스 소원길 구간과 주요 자원	46
[그림 3-12] 태안해변길 제3코스 솔모랫길 구간과 주요 자원	47
[그림 3-13] 태안해변길 제4코스 노을길 구간과 주요 자원	48
[그림 3-14] 태안해변길 제5코스 셋별길 구간과 주요 자원	49
[그림 3-15] 태안해변길 제6코스 바람길 구간과 주요 자원	50
[그림 3-16] 1940-80년대 태안해안의 국토개발과 관광개발	53
[그림 3-17] 1980-2000년대 태안해안의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55
[그림 3-18] 2000년 이후 태안해안의 환경보전	57
[그림 4-1] 데이터 전체 정제 결과	62
[그림 4-2] 장소 키워드	63
[그림 4-3] 주요 행태 키워드	64
[그림 4-4] 계절별 방문 빈도	65
[그림 4-5] 위치 장소 키워드 빈도수 및 비율	66
[그림 4-6] 위치 장소 키워드 빈도 결과	66
[그림 4-7] 소셜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구역	68
[그림 4-8] 인스타그램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CP) 분포	74
[그림 4-9] 학암포 구역 CP 경관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102
[그림 4-10] 신두리 구역 CP 경관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104
[그림 4-11] 천리포-만리포 구역 CP 경관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106
[그림 4-12] 몽산포-청포대 구역 CP 경관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108

[그림 4-13]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CP 경관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	110
[그림 4-14] 꽃지 구역 CP 경관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112
[그림 4-15]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유형 분포	115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서·남해안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각 해안 별로 특색 있는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위·백사장·갯벌·배후송림·섬·산·기암절벽 등 자연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경관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온 사찰과 정자를 포함한 역사·문화 유적지나 어촌마을, 항구 등 인공 경관이 형성되어 있어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안지역은 자원과 공간이용 및 생태계 측면에서도 귀중한 자원이며,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가 상호간의 관계성을 지니며 존재하는 독자적인 특색을 갖춘 공간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관광 자원화 요소의 하나(윤상호, 2007)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 관광자원을 공급위주의 사업을 통해 추진한 국토개발 정책은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전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초래했다(환경부, 2004).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해안지역은 도시의 주연부로 인식되어 도시와 분리되어지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자원 확보의 편리성과 함께 공장이 입지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1990년대 초기 연안지역 시·군들은 지역개발 및 지역 축제 기회 등 재원확보를 위해 우수한 자연경관이 분포한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발생시켰다(윤상호, 2007). 그로인해 해안은 환경오염, 무분별한 훼손과 크고 작은 상업시설의 난립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토경관의 핵심인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국토환경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생태계 보호의 균형을 맞추면서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경관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방식이 주목받

으며, 개발 지향적 정책보다는 쾌적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경관관리 정책은 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설계 요소 등의 연계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분명했다(정태일·오덕성, 2003).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관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자연환경, 역사문화, 생활공간을 아우르는 경관계획 수립 및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이때부터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관법』은 도시지역의 경관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자연경관에 대한 경관평가 및 관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도시지역 경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홍석환 외, 2014)이며, 경관계획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관자원에 관한 연구도 단순 현황조사 차원에서 시행되거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선정되는 경관자원들은 주관적으로 평가 및 분석이 되고 있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다(박명희 외, 2014). 또한 경관은 바라보는 대상과 주체, 체험활동 등 다양한 쉼터 형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어온 경관자원 연구는 시각적 자원에 국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시각자원에 대해 관리해오고 있어서, 사람이 체험하는 경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연구되어 온 문제도 있다.

경관연구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경관자원 도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행했던 방법으로는 현장방문,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성적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특히 해안의 경우 산림과는 다르게 출구와 입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접근 경로 및 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는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고 넓은 공간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경관자원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경관자원 조사와는 다른 방법이 접근이 요구된다.

웹 2.0¹⁾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경관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1) 웹 2.0(Web 2.0)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말한다. 웹 1.0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여주었다면, 웹 2.0은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참여, 공유, 개방을 유도산출물을 공유하고,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wikipedia)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활용한 경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에게 의하여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터넷 사진 콘텐츠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간 및 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이며, 공간계획 및 경관연구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빅 데이터이다(AURI, 2012).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중 인터넷 사진을 활용한 경관연구는 사진의 속성 중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의 활용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국내에서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에서도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사진을 활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진촬영 지점 분석을 통한 경관 핫스팟 분석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접목하여 자원조사를 주로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경관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방문객의 인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사진을 활용한 경관연구에 있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관사진과 함께 사진에 포함된 텍스트 및 방문자의 행태분석을 병행하여 다각도의 경관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체계적인 경관계획 및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이에 대한 인식 분석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통해 느낀점이나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타인과 공유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경관에서 활동하고 향유하며 체험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해안경관을 연구하기에 앞서 해안경관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을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대상지는 동해와 부산 또는 제주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수행된 서해안 경관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본 연구의 대상 공간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서해안 지역 중 서해안 경관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방문자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표현된 서해안 경관자원을 도출하고 경관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해안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살펴보고,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의미를 정리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활용의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경관연구 분야에서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분석 데이터로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경관에 대한 계절별 선호 및 인식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수집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과 사진 속 속성 정보 추출과 데이터 정제 및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주요 공간을 도출하여 경관자원 도출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해안경관의 경관자원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과 텍스트를 토대로 방문객이 인식하는 서해안의 특징있는 경관자원과 그 장소에서의 사람들의 행태와 문화적 특성을 함께 알아보고자, 소셜미디어 매체 중 국내외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서해안 경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방문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어떠한 자원들이 경관으로 인지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작성되는 텍스트를 통해 해안경관에 대한 선호 및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연구 방법과 대비되는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 현상을 미시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며, 연구의 대상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하며 생생한 경험에 대한 이해 및 의미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 대상에 관한 개별적 입장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방법이다(이희영, 2005).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의 공통점은 대상에 관한 ‘체험’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며, 해석을 통한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이제이,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수집하는 방문객들의 태안해안에서 경험한 해안경관에 대한 인식 및 선호를 기록한 소셜미디어의 게시물들은 질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서해안 경관에 관한 게시물을 수집하여 다각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연구 주체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단계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며 구체적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키워드의 개념 및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해안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범위를 정리하고,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의의를 분석함으로써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해안 경관 연구의 의미를 도출한다.

3장에서는 문헌자료 및 지리정보시스템(ArcGIS 10.2.1)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한다. 공간정보를 토대로 경관의 형성요인을 분석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본적 현황을 살피고 신문자료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시간흐름에 따라 대상지의 경관가치에 대한 변화를 정리함으로써, 대상지에 존재하는 주요 자원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경관자원을 도출하고 특성을 파악한다. 수집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인 CP를 도출하고 사진과 함께 작성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경관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과 경관요소, 특성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체험을 기반으로 설정된 경관유형 분류 틀을 적용하여 경관 유형을 분류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특성을 분석한다.

2.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매체의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된 ‘태안해안’ 관련 게시물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셜미디어 매체는 매 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²⁾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할

2) 디지털 미디어랩 DMC미디어는 2017년 8월 최근 1개월 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한국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7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약 7명에 해당하는 68.7%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페이스북(88.8%)과 카카오톡(70.1%), 밴드(56.1%) 등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기타 모든 소셜미디어의 가입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17 소셜미디어 이용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에서의 검색어를 설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사용자들이 사진 이미지와 함께 해시태그(hashtag, #)³⁾를 작성하여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특징이 있다. 해시태그는 특히 사진 SNS인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게시된 사진에 해시태그를 추가함으로써 그 사진의 주제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진이 검색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내의 검색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스타그램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게시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의 설정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본 조사에 앞서 ‘태안’, ‘태안해안’, ‘태안해변’,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해변길’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시물의 수를 비교하였다. 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결과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검색되는 게시물 수는 ‘태안’이 175,687개, ‘태안해안’이 20개, ‘태안해변’이 59개, ‘태안해안국립공원’이 343개, ‘태안해변길’이 564개이다. 이와 같이 ‘태안’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게시물 수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표본수와 객관성 등의 이유를 토대로 다양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색되는 게시물의 수가 많은 키워드로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키워드는 ‘태안’으로 선정하였다.

3) 해시태그는 단어나 여백 없는 구절 앞에 ‘#’ 기호를 붙이는 형태의 표시방법 또는 메타데이터 태그이다. 마이크로 블로깅 혹은 SNS에 업로드한 게시물의 단락 내 혹은 마지막에 특정 단어나 문장에 해시태그를 붙이는데, 여기서 해시태그는 게시물을 태그한 키워드를 토대로 주제별로 그룹화 하는 기능을 한다. 그로 인해, 태그라 붙여진, 즉 태깅(tagging)된 게시물들은 동일한 해시태그에 따라 함께 검색이 가능하다.

3. 데이터 획득 및 처리

인스타그램 내의 검색어는 ‘태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어있는 게시물의 자료 수집을 위해 웹 데이터 웹 크롤러⁴⁾ 프로그램 4kstagram을 활용하였다.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게시물로 기간을 한정하여 검색하였으며, 검색한 결과 34,827개의 게시물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인 중심의 해안경관 인식 파악을 위함이므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된 결과 중 홍보용, 셀카, 음식물, 사물 접사 등 경관요소와 무관하거나 경관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타 게시물 등을 제외하고 방문객이 바라보는 경관과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자원이 드러난 사진 위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9,110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선별되었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선별된 데이터는 이미지에 포함된 속성정보를 추출하는 설계 구조로 만들어진 ‘EXIF Pilot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스타그램에서 수집한 사진 데이터의 속성 정보 중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때 함께 작성한 텍스트와 해시태그를 추출하여 텍스트파일(.txt)로 변환하고 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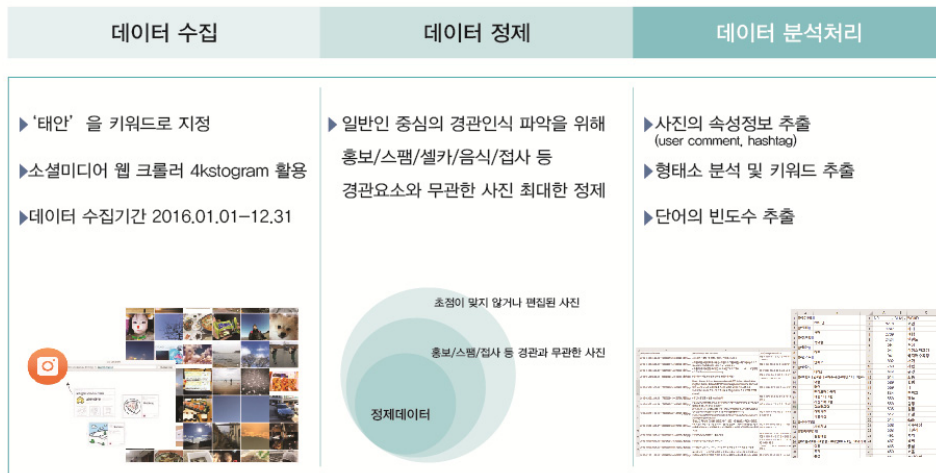
또한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 강승식 교수가 개발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 ‘KLT2000-TEST’를 활용하여 이전 단계에서 추출한 비정형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였다. 형태소 분석에서 인지된 첫 번째 단어⁶⁾ 들을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 방대한 웹페이지를 두루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해오는 프로그램으로, 검색엔진의 근간이 된다. 크롤러는 사용자가 웹페이지의 각 링크를 일일이 따라가 정보를 얻는 작업을 대신하여 자동적으로 웹서버를 순회하며 웹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URL들을 추출한 후 그 URL들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텍스트·수치·그림·멀티미디어 정보 등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출처 : 두산백과)

5)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또는 EXIF는 각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이미지 파일 사양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타 데이터에는 카메라 제조사 및 모델, 아티스트 이름 및 저작권, 조리개, ISO, 노출 등과 같은 촬영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이미지를 게시할 때 함께 작성된 정보들(텍스트, 해시태그, 업로더 이름 등)도 이미지에 속성정보로 저장되는데, EXIF를 통해 함께 추출 가능하다.

6) 예를 들어 ‘운여해변일몰’이라는 해시태그를 형태소분석기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운여해변 일몰’, ‘운여’, ‘해변’, ‘일몰’으로 분석 값이 도출된다.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으로 추출된 데이터는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⁷⁾을 이용하여 단어의 빈도를 분석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핵심어, 주요 이미지, 중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도출된 빈도수와 결과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관 특징과 주요 방문 장소 핫스팟을 분석하고, 태안해안에서 인식하는 주요 경관형용사를 도출한다. 덧붙여 키워드와 사진의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해안경관에서의 방문자의 활동 및 행태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1]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과정

7) KrKwic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박한우 교수가 협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내용분석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영어권의 언어를 위한 것으로 한국어의 전산처리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4절 연구의 흐름

[표 1-1] 연구의 흐름도

연구 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 연구의 방법 - 연구의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 데이터 획득과 처리과정	
제2장 이론적 고찰	해안경관 - 해안경관의 개념과 유형 및 구성요소 소셜미디어 - 소셜미디어와 SNS의 개념 및 SNS의 발달과정 -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의 선행연구 검토 - 해안경관과 소셜미디어 분석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의 착안점 도출	문헌연구
제3장 대상지 분석 및 태안해안의 가치인식 변화	대상지의 이해 - 대상지의 자연환경 · 인문환경 분석 태안해안국립공원 경관 가치 인식 변화 - 시대적 흐름에 따른 태안해안의 가치변화 분석	GIS 분석 문헌연구
제4장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경관자원 및 특성 분석	소셜미디어 전체 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 텍스트 분석을 통한 방문객의 경관 인식 파악 주요 구역별 경관특성 분석 - 태안해안의 주요 공간을 도출을 통한 대표경관 도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한 각 공간별 경관자원과 특성 분석	소셜 미디어 분석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한계 및 의의와 향후과제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해안경관

1. 해안경관의 개념

경관(landscape)의 기원은 독일어 란트샤프트(landshaft)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조망되는 대상 경(景)과 조망하는 것으로의 관(觀)과 관련된다.⁸⁾ 그러나 경관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을 넘어, 그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지와 심리적 차원까지도 연관이 있다. 김덕현(1999)은 경관을 바라보는 주체인 인간에게 지각되는 대상이 문화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임승빈(2009)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 풍경과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와 인간의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경관법」에서도 명시하였는데, 「경관법」 제2조 제1항에서 ‘경관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관이란 대상에 대한 조망과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배현미 외, 1991), 인간의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관은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인공경관)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자연경관은 지형에 따라 산림경관, 평야경관, 해양경관으로 구분되고, 문화경관(인공경관)은 주거의 양식에 따라 도시경관과 농촌경관으로 구분된다(임승빈, 1991).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해안경관은 해안(海岸)과 경관(景觀)이 합해진 개념으로, 해안은 해역과 육역의 물리적, 생태적, 자연적 상호과정

8) ‘landscape’ 는 처음에는 바다경관(seascape)이나 바다 그림에 대비되는 ‘내륙의 자연 풍경(inland natural scenery)’ 또는 내륙의 자연 풍경 그림을 뜻했으나, 현대로 오면서 내륙 풍경이나 자연 풍경에 국한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자연 및 도시 풍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출처 : 임승빈, 2009)

에 의해 형성되는 특색있는 생태공간이며,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다. 그러므로 해안은 환경·생태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또한 해안은 다른 공간에 비해 시간의 변화에 민감한 공간으로(Rusell, 1967; Shepard and Wanless, 1971), 해안경관은 시간에 의해 자연과 인간 생활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태와 양상이 역동적이며 불규칙적으로 변해 왔다.



[그림 2-1] 경관의 형식

(출처 :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해안경관은 연안경관(coastscape) 또는 seascape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으로 seascape의 의미는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망 또는 대상에 대한 묘사로 정의한다.⁹⁾ 광의의 개념에서 seascape는 바다에서 육지로 혹은 육지에서 바다로의 시야를 모두 포함하며, 해안선을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광경을 의미하고, 해역과 육역의 연계가 함께 표현되는 경관으로 정의한다(Hill, M. et al., 2001). 해안경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제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윤상호(2007)는 건축물과 구조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안의 이용 및 개발행위로부터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력으로 보았다. 이석환(2010)은 해안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적·물리적 대상인 자연·인간·인공물의 총체적 조

9) The Concise of Oxford Dictionary.

망으로 정의한다. 정찬민(2011)은 해안지역에 자연적 요소와 개발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이 통합적으로 생겨나는 자연경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기관에서도 해안경관을 정의하였는데, 국토해양부(2011)의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해안경관을 해안선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육역과 해역의 인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형성된 풍경으로 정의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의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육역과 해역을 다루고 있는 점을 넘어서 해저·해중·해면까지 포함하여 형성되는 풍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 해안경관의 정의

연도	출처	논문 및 보고서명	내용
2001	Hill, M. et al.	Guide to Best Practice in Seascape Assessment	바다에서 육지로 혹은 육지에서 바다로의 시야를 모두 포함하며, 해안선을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광경을 의미하고, 해역과 육역의 연계가 함께 표현되는 경관
2007	윤상호	해안지역의 경관 관리방안 연구	건축물과 구조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안의 이용 및 개발행위로부터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력
2010	이석환	일본 해안경관 형성과정의 메커니즘 분석	해안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적·물리적 대상인 자연·인간·인공물의 총체적 조망
2011	정찬민	해안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해안지역에 자연적 요소와 개발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이 통합적으로 생겨나는 자연경관
2011	국토해양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안선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육역과 해역의 인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형성된 풍경
20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해저 해중 해면 및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서 형성된 풍경

위에서 학제적으로 제시된 해안경관의 정의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역과 육역의 단순한 평면적 해석을 넘어, 그 범위를 해중까지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을 바라보고 그 공간에서 인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인지하는 경관 자원 요소들과 문화적 요소를 보고자 하여, 본 연구에서의 해안경관은 해저·해중·해면의 자연환경 요소를 제외한 해안선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육역과 해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생활환경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해안경관의 유형과 구성요소

해안경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도시경관)으로 크게 두 경관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안경관은 자연경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안경관은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타 다른 육지지역과 다른 경관요소가 존재하며 해안경관의 유형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안경관의 유형분류를 위해 행정적 측면의 관련법규와 관련계획과 학술적 측면에서 관련연구에 의해 분류된 해안경관유형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1) 관련법규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해안경관과 관련된 법규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관광진흥법 등이 있으며, [표 2-2, 2-3]과 같이 관련법규에서 나타나는 지역, 지구 등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유형을 도출하고, 각 법규에서 도출된 경관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관련 법규에 의해 분류된 해안경관 유형을 종합한 결과, 자연경관, 항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9가지의 경관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2-2] 관련 법규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법률	내용	해당 경관유형	도출된 경관유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839호	제2절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1.도시지역, 2.관리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시가지경관 농촌경관 자연경관	
연안관리법 법률 제 14740호	제3장 제15조(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1.이용연안해역, 2.특수연안해역, 3.보 전연안해역, 4.관리연안해역	산업·항만경관 어항경관 관광·휴양경관 공원경관	
항만법 법률 제14452호	제1장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1.무역항, 2.연안항	항만경관 농어촌경관	
어촌·어항법 법률 제14244호	제1절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1.국가어항, 2.지방어항, 3.어촌정주어 항 및 마을공동어항	어촌어항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
관광진흥법 법률 제14525호	제52장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 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휴양경관	산업경관 항만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공원경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436호	제4장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 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 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39호	제4장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국가도시공원, 2.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3.주제공원 : 역사 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 공원, 도시농업공원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해양부(2011)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2-3] 관련 법규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계속)

법률	내용	해당 경관유형	도출된 경관유형
<p>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458호</p>	<p>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1.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p>	<p>자연경관 생태경관</p>	<p>자연경관 생태경관 산업경관 항만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공원경관 시가지경관</p>
<p>자연공원법 법률 제14782호</p>	<p>제2장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p>	<p>자연경관</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해양부(2011)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 관련계획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관련법규와 함께 검토해 본 해안경관과 관련한 계획에서는 해안에서부터의 위치, 자연지형과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가로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경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4]와 같다. 관련 계획에 의해 분류된 해안경관 유형을 종합한 결과, 향만경관, 어촌경관, 해안도로경관, 내륙자연경관, 해안자연경관 등 10가지의 경관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2-4] 관련 계획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계획명/기관	내용	해당 경관유형	도출된 경관유형
남해안 경관기본계획/경상남도(2010)	경관계획을 기본경관계획·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기본경관계획 : 권역별 계획 및 유형별 계획 제시 -특정경관계획 : 도시경관계획 및 해안경관계획 분류	농어촌 생태자연 시가지 문화경관	
섬경관 형성계획/전라남도(2008)	전남지역 섬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경관, 해안·내륙마을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구분함	자연경관 해안마을경관 내륙마을경관 역사문화경관 도로경관	시가지경관 향만경관 산업경관 어촌경관 농산촌경관
동해안벨트 경관형성계획/강원도(2008)	도시경관을 1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해안지역과 관련 있는 유형은 해안경관과 어항경관으로 분류됨	해안경관 어항경관 농촌경관 구릉지경관 시가지경관 도로경관 철도경관 진입부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해안도로경관 내륙자연경관 해안자연경관
심곡·금진지구 해안경관형성계획 수립 연구/강릉시(2003)	해안경관을 해수욕장경관, 어촌·어항경관, 역사·관광지경관 등으로 구분함	해수욕장경관 자연경관 어촌·어항경관 역사·관광지경관 도로경관	

자료 : 국토해양부(2011)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3) 관련연구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와 함께 학술적 측면에서 해안경관 관련 연구에 의해 분류된 해안경관유형을 검토하였다.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기관의 성격 및 경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으며, 해안선의 위치에 따라, 시각적 측면에 따라, 또는 경관요소 및 경관의 분포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나타났다. 관련 연구들에서 분류된 해안경관 유형을 종합하고 정리 한 결과, 항만경관, 어촌·어항경관, 해수욕장경관, 친수공간경관 등 10가지의 경관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그 내용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관련 연구에 의한 해안경관 유형 분류

연구명	내용	해당 경관유형	도출된 경관유형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물리적 구성 요소 개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노영란 외 (2008)	해안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해역, 하늘, 해안선, 송림 등의 자연 경관과 파도와 너울 등의 자연 현상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과 선박, 교량, 건축물 등의 인공 현상에 의해 형성되는 인문 경관을 모두 포함함	자연경관 인문경관	
해안지역의 경관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3)	해안경관의 공간 구분을 연안·수변·수계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눈 후 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함	자연경관 어촌·어항경관 해수욕장경관 친수공간경관 해안도로경관	자연경관 어촌경관 어항경관 항만경관 역사문화경관 해수욕장경관 친수공간경관 해안도로경관 산업경관 정작지경관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해양수산부 (2002)	해안경관을 자연경관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각적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실시함. 그러나 제시한 경관유형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여 경관관리에 적용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명시함	자연경관 역사경관 관광지경관 교통경관 정주경관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8)	해안경관을 분류하는 주요 변수로 지형, 식생, 토지이용 등을 활용하였으며, 해안지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지형을 구분하고, 식생의 종류 및 피복특성에 따른 재분류 실시함	암석해안 자갈해안 모래해안 간석지해안	

자료 : 국토해양부(2011)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4) 해안경관 유형 분류의 종합

해안경관의 유형은 관련 법규 및 계획과 연구에서의 분류한 유형들의 검토를 통해 각 체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해안경관 유형을 분석 및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해안경관을 관련 법규에서는 9가지의 유형으로, 관련 계획에서는 10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연구에서는 10가지의 경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표 2-6]과 같이 해안경관 유형을 자연경관, 생태경관, 역사문화경관, 관광휴양경관, 시가지경관, 농어촌경관, 산업경관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2-6] 해안경관 유형 분류의 종합

경관유형	관련법규의 유형	관련계획의 유형	관련연구의 유형	종합
자연경관	●	●	●	●
생태경관	●	●	○	●
관광휴양경관	●	●	●	●
역사문화경관	●	●	●	●
경작지경관	○	○	●	○
어항경관	○	○	●	○
항만경관	●	●	●	어촌·산업경관에 포함
친수공간경관	○	○	●	○
공원경관	●	○	○	○
해안도로경관	○	●	●	○
농산촌경관	●	●	○	●
어촌경관	●	●	●	●
시가지경관	●	●	○	●
산업경관	●	●	●	●

(● : 포함, ○ : 불포함)

위와 같이 해안경관의 유형을 특성에 따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생태자연형, 인공형, 문화형 3가지로 분류하였다. 생태자연형 경관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생태경관과 개발의 제한으로 인해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인 자연경관으로 공간(지역)의 자연성

정도에 따라 두 분류로 구분하였다. 인공형 경관은 인간의 생활 또는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문화형 경관은 인간의 문화·여가로 인해 형성되는 지역이나 문화재 등이 있으며, 이를 관광휴양경관과 역사문화경관으로 구분하였다.

[표 2-7] 해안경관 유형과 대상지역

구분	유형	대상 경관 정의	주요 대상	
자연경관	자연경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환경적으로 우수하여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	해안의 주요 지형, 산림, 송림, 해수욕장 등	
	생태경관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적 상태로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철새도래지, 습지보전지역	
인문경관	인공	시가지경관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인공 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	해안도시의 주요 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상업업무경관 등
		산업경관	공업, 물류 등의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무역항, 산업 및 공업 단지
		농어촌경관	어업, 농업 등의 생산 활동의 공간이며, 시가지 경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문화	관광휴양경관	인간의 여가와 휴식을 위하여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공간, 전망공간 등 관광 및 휴양시설이 밀집된 지역	해안과 인접한 주요 관광지
역사문화경관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나타내는 사찰(경내지 포함), 서원 등	

자료 : 국토해양부(2010, 2011)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절 소셜미디어

1. 빅 데이터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 혁명에 이어 '스마트 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시대는 기술 발전과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창조 및 가공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를 말한다(임대규, 2016) 이에 따라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빅 데이터(Big Data)가 주목받고 있으며, 등장과 동시에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으로 손꼽히는 맥킨지(McKinsey)는 빅 데이터의 정의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관리와 데이터 분석의 역할을 넘어서는 데이터 셋 규모라고 내렸으며, 그 정의는 주관적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정보기술 회사 가트너(Gartner)는 빅 데이터를 3V(Volume, Velocity, Variety)로 설명하였다. 크기(Volume)는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빅 데이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속도(Velocity)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될 때,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Variety)은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여, 빅 데이터의 성격을 설명하기도 한다.

빅 데이터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비해 크기가 방대하고 생성주기가 짧은 특징이 있으며, 기존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유형에서도 과거 단조로웠던 데이터 종류에 비해 로그, 소셜미디어, 위치정보 등의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 SNS상에서의 텍스트와 화상이미지 등의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

2. 소셜미디어와 SNS의 개념 및 SNS의 발달과정

(1) 소셜미디어의 개념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타인과의 공유가 가능해진 웹 2.0 시대가 오면서, 포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터넷 활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소셜미디어가 발전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대중매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기관의 사회성을 증대시켜 주는 미디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뉴 미디어 분석가인 Chris Shipley는 소셜미디어를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고, 자신의 견해를 타인과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이자 미디어 플랫폼이라 정의하면서, 블로그, 위키, SNS와 연관된 기술들이 결합되어 이용자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준다고 하였다. 이용자 간의 의견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소셜미디어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목적은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식 창조와 오락성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셜미디어를 SNS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구분하면 소셜미디어는 SNS 이외에 블로그,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공유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아직까지 소셜미디어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나, 다양한 관점과 분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표 2-8].

[표 2-8] 소셜미디어의 정의

구분	정의
Wikipedia	컴퓨터를 매개로 하고 가상세계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서 정보,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공유 및 창출이 가능한 도구
Kaplan, Haenlein(2010)	웹 2.0 상에서 UGC(사용자제작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를 창조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 어플리케이션
Murthy(2013)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이에 접근 가능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Dewing(2010)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 인터넷 서비스
Newson et al(2009)	온라인 정보에 관한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도구와 프로그램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소셜미디어는 웹 2.0 상에서 UGC 제작에 기여하고 정보에 관한 참여와 소통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SNS 및 다른 형태의 미디어도 포함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종류로는 블로그, SNS, UGC, 마이크로블로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생성되면서 새로운 카테고리도 생기기도 하며, 최근에는 기존의 소셜미디어에 소셜북마킹, 팟캐스팅·비디오 캐스팅 등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각 분류별로 해당하는 구체적인 미디어로는 아래의 [표 2-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공유하고 가상 커뮤니티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정보의 전달과 확산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재창조까지 가능하다.

[표 2-9] 소셜미디어의 분류와 대표 서비스

구분	기능	대표 서비스
블로그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견해나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게시	텀블러(Tumblr), 블로거(Blogger)
SNS	정보공유와 관계형성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위키	공동창작, 정보공유, 협업에 의한 지식 창조	위키피디아(Wikipedia), 공유사이트(Sharing sites)
UGC	이용자의 상업적인 의도없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에 업로드	유튜브(Youtube), 핀터레스트(Pinterest), 인스타그램(Instagram)
마이크로 블로그	짧은 단문형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	트위터(Twitter), 웨이보(Weibo)
소셜북마킹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음	레딧(Reddit), 디그(Digg), 스템블어폰(StumbleUpon)
가상세계	가상세계에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팟캐스팅, 비디오캐스팅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음원 등의 콘텐츠를 다운받아 모바일기기로 감상	팟캐스트(podcast), 비디오캐스트(video-cast)

자료 : 경기연구원(2015)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 SNS의 개념과 발달과정

소셜미디어의 한 종류인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Social Network Site’의 약자로 사용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과 우리나라 간에 차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표기가 다르다. 이처럼 SNS에 대한 정의는 [표 2-10]과 같이 학자마다, 연구마다 다르다.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SNS는 인터넷 상의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플랫폼이다.

[표 2-10] SNS의 정의

구분	정의
Boyd, Ellison(2007)	SNS 이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 혹은 준공개하고 그들과 관련있는 타인들의 목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와의 연계망까지 검색 및 이동하는 서비스
Trottier, Fuchs(2014)	다른 미디어,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자 간 관계 형성을 허용하고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웹 기반의 플랫폼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인터넷에서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는 서비스
정기주 외(2011)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친목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서비스
표원정(2011)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의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김유정(2012)	소셜 미디어 중 정보를 공유하며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충족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현재의 SNS는 3세대 SNS까지 발전해왔다. SNS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1세대 SNS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 등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관계를 온라인으로 확장시켜 연결하는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때에는 온라인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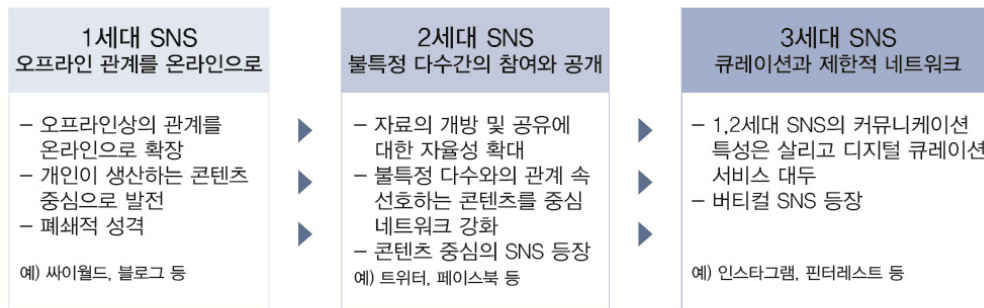
조직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전되는 특징이 있었고,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폐쇄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1세대 SNS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으나 10대부터 30대까지의 한정적인 연령층의 사용자들로 인해 제한적인 데이터 분석만 가능했던 한계가 존재한다.

2세대 SNS는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료의 개방 및 공유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불특정 다수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세대 SNS에서는 단순한 오프라인 관계를 넘어 선호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 내의 관계가 강해지는 특성을 갖는다. 2010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로 인해 스마트 모바일 환경과의 접목이 되었고, 트위터 등 2세대 SN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였다. 또한 대용량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콘텐츠 중심의 SNS가 등장하였다.

3세대 SNS는 1,2세대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디지털 큐레이션¹⁰⁾ 서비스’를 대두시켰다. 그 결과 구글, 애플 등 거대 플랫폼과의 경쟁이 아닌 하나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성격의 버티컬 SNS가 등장하였다. 버티컬 SNS는 작은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갖던 사람들도 직접 그들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동하게 유도한다. 버티컬 SNS으로의 변화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이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공유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디어의 양은 적어지지만 특정 분야에 관해서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10) 큐레이션(Curation)이란, 박물관의 전시와 기획, 작품을 선별하고 하나의 주제로 전시 하듯이 SNS상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콘텐츠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개별 목적에 따라 분류 및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선별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다양한 정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합해내는 파워블로거나 스마트폰에서 비슷한 주제에 따라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큐레이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콘텐츠 중심의 SNS의 성격과 하나의 키워드를 주제로 콘텐츠를 검색 및 분류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점, 버티컬 SNS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으로 인하여 3세대 SNS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림 2-2] SNS의 발달과정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 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2012)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소셜미디어의 의의

SNS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웹 2.0 기반의 소셜미디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정보전달에 있어 과거 아날로그 매체의 일방적 전달과 폐쇄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SNS 이용자들은 계정을 생성하고 가상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으며, 타인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용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며 교류를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 분야나 의견을 온라인상의 새로운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인맥을 형성한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의 전달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낮은 비용으로 콘텐츠의 공유와 재생산이 용이하며, 이렇게 생산되는 콘텐츠들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플랫폼에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전문적·비전문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공유한다. 그 결과로 집단지성을 발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웹 2.0 기반의 콘텐츠는 전문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비해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도 존재한다(배선학, 2010).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의 사용자가 특정 이해관계를 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하여도, 전체 생산되는 콘텐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의견의 전반적 흐름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생산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콘텐츠를 생산하므로,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한해서는 일정 수준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다(이영진, 2011).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생산한 인터넷 사진 정보를 이용한다면, 특정 지역의 경관자원 도출 및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해안경관과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선행연구 키워드로, 이와 관련하여 선행되어온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해안경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해안경관 평가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와 경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관광트렌드 및 소비자의 인식과 관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 분야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으나, 소셜미디어를 공간 또는 경관분야와 연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인터넷 상의 사진 중 지리정보가 포함된 사진의 위치정보 분석을 통한 공간의 주요 장소 도출이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 공간정보를 활용한 연구방법에 관련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1) 해안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윤상호(2007)는 해안경관을 어촌경관, 자연경관, 해수욕장경관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경관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남형, 강향혜(2007)는 총 45쌍의 감성형용사 대귀를 선택하여 SD(Semantic Differential) 척도를 이용하여 제주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결과 값을 토대로 주성분을 분석하고 해안경관의 지배인자 추출 및 해안경관의 의미 공간 파악을 실시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2007-2008)은 동·서·남해안의 지형과 피복, 식생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래해안, 암석해안 등의 관리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영란(2008)은 해안경관을 바다에서 육지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여수시와 목포시의 해안경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가능 정도와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작용 및 해안경관의 이미지 평가와 해안경관 구성요소들 간의 개선필요도 분석을 종합하여 경관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구본아(2008)는 해수욕장 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도 분석을 통해 해안경관 선호도와 경관의 선호요인 및 해안경관의 환경 심리적 변수를 쾌적성, 안정성, 심미성, 친숙성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정찬민(2011)은 관동팔경 중 망양정과 월송정을 대상으로 해안경관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고문헌을 중심으로 경관자원 인식을 분석하였고 조망경관 등급화를 위한 조망점의 가시권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주민 및 이용자의 경관인식조사를 토대로 해안문화유산 주변의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2011)는 우리나라가 해안권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관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은 연안경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경관 유형분류를 실시하였고 유형별 경관관리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경관 관리정책 분석을 통해 해안경관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숙향(2015)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목록화 및 등급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립공원 경관을 해양, 산악, 마을, 사찰 및 사적경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망성, 고유성, 이용성, 역사·문화성, 자연성 5가지 항목으로 경관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경관유형별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고 경관등급을 구분하였다.

[표 2-11] 해안경관에 관한 선행연구 및 내용

구분	연구	내용
경관 평가 및 특성 분석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2007~2008)	동·서·남해안의 지형과 피복, 식생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래해안, 암석해안 등의 관리보전방안을 제시함
	“SD 척도에 의한 해안경관 평가”, 김남형, 강향혜(2007)	SD척도를 이용하여 제주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결과 값을 토대로 주성분을 분석하고 해안경관의 지배인자 추출 및 해안경관의 의미 공간 파악을 실시함
	“부산 해안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분석”, 구본아(2008)	해수욕장 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도 분석을 통해 해안경관 선호도와 경관의 선호요인 및 해안경관의 환경 심리적 변수를 쾌적성, 안정성, 심미성, 친숙성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함
	“한려해상국립공원 경관자원 목록화 및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이숙향(2015)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양, 산악, 마을, 사찰 및 사적경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망성, 고유성, 이용성, 역사·문화성, 자연성 5가지 항목으로 경관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경관유형별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고 경관등급을 구분함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노영란(2008)	해안경관을 바다에서 육지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여수시와 목포시의 해안경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가능 정도와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작용 및 해안경관의 이미지 평가와 해안경관 구성요소들 간의 개선필요도 분석을 종합하여 경관개선 우선순위 제시
경관 관리	“해안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연구”, 윤상호(2007)	해안경관을 어촌경관, 자연경관, 해수욕장경관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경관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함
	“해안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관동팔경 중 망양정, 월송정을 중심으로-”, 정찬민(2011)	관동팔경 중 망양정과 월송정을 대상으로 해안경관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고문헌을 중심으로 경관자원 인식을 분석하였고 조망경관 등급화를 위한 조망점의 가시권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주민 및 이용자의 경관인식조사를 토대로 해안문화유산 주변의 경관관리방안 제시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2011)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을 제시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연안경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경관 유형분류를 실시하였고 유형별 경관관리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의 경관 관리정책 분석을 통해 해안경관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2)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성된 인터넷 사진 정보를 기존 계획 및 문헌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사진정보의 공간계획 분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인터넷 사진정보 서비스 중 야후(Yahoo)에서 제공하는 플리커(Flickr)의 사진정보 중 위치정보를 보유한 사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제이(2013)는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장소성을 미시담론의 차원으로 분석하고자 블로그와 트위터의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일반인이 느끼는 장소감을 해석하였다.

Alexandra Weilenmann et al(2013)은 대중들의 경험을 인스타그램 사진을 통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경험을 문서화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박물관 방문객의 경험의 상호 전달 및 소통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방문객들은 박물관 경험에 대하여 물리적 위치를 넘어 사회적, 다층적, 심미적 등 다양한 방면으로 대화를 확장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온라인 소셜미디어와 박물관 사이트 간의 연결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박명희, 양승우(2014)는 서울 도심부의 경관자원 및 조망점 분석 방법으로 인터넷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구글의 파노라미오(Panoramio)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의 속성정보 중 촬영 지점, 시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선호하는 장소 및 시기별 선호 장소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Lydia Manikonda et al(2014)은 소셜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이 사진 및 비디오를 공유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임에도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시작하여, 1개월 동안 크롤링 한 데이터를 토대로 대규모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자 활동, 인구 통계, 소셜 네트워크 구조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민지 외(2015)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표현된 사용자

의 의견 및 태도와 같은 주관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Thayer의 모델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주요 감정 키워드를 추출함으로써 감정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Alexander Dunkel(2015)은 조경 및 도시계획 분야에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각화하기 위해, 군중이 형성하는 사진의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는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관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Boris T. van Zaten et al(2016)은 대륙적 규모의 경관을 평가하는 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파노라미오(Panoramio), 플릭커(Flickr),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나타나는 경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세 가지 분석 대상 중 특히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자의 수가 존재하고 이들이 업로드한 이미지와 코멘트, 해시태그가 있어 경관을 평가하는 데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박민영, 박경(2017)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방문객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6년 사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어있는 경관사진과 해시태그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방문객이 선호하는 지오사이트와 지형 및 지질 자원에 대한 인식 연구를 시행하였다.

김예림, 손용훈(2017)은 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벽화마을 경관 및 장소 정체성 및 선호경관의 이용자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SNS 중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게시물에 나타난 이화동의 경관자원을 분석하고 방문자들의 선호 경관을 파악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민, 이주민, 관광객의 벽화마을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선호 차이를 고찰하였다.

[표 2-12]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및 내용

연구	내용
“장소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 정보 활용 방안”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인터넷 사진정보의 공간계획 분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인터넷 사진정보 서비스 중 야후(Yahoo)에서 제공하는 플리커(Flickr)의 사진정보 중 위치정보를 보유한 사진을 대상으로 분석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연구 -장소감을 중심으로-” , 이제이(2013)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장소성을 미시담론의 차원으로 분석하고자 블로그와 트위터의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일반인이 느끼는 장소감을 해석
“Instagram at the Museum: Communicating the Museum Experience through Social Photo Sharing” , Alexandra Weilenmann et al(2013)	대중들의 경험을 인스타그램 사진을 통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경험을 문서화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박물관 방문객의 경험의 상호 전달 및 소통 방법에 대하여 분석
“인터넷사진을 활용한 서울 도심부 경관자원 및 조망점 분석” , 박명희, 양승우(2014)	서울 도심부의 경관자원 및 조망점 분석 방법으로 인터넷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구글의 파노라미오(Panoramio)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의 속성정보 중 촬영 지점, 시간정보 등을 분석하여 선호하는 장소 및 시기별 선호 장소 변화 등을 분석
“Analyzing User Activities, Demographics, Social Network Structure and User-Generated Content on Instagram” , Lydia Manikonda et al(2014)	소셜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이 사진 및 비디오를 공유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임에도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시작하여, 1개월 동안 크롤링 한 데이터를 토대로 대규모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자 활동, 인구 통계, 소셜 네트워크 구조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감정 분류 방법” , 남민지 외(2015)	블로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표현된 사용자의 의견 및 태도와 같은 주관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Thayer의 모델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주요 감정 키워드를 추출함으로써 감정 분류 방법을 제시
“Visualizing the perceived environment using crowdsourced photo geodata” , Alexander Dunkel(2015)	조경 및 도시계획 분야에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각화하기 위해, 군중이 형성하는 사진의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는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관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함

[표 2-12]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및 내용(이어서)

연구	내용
<p>“Continental-scale quantification of landscape values using social media data” , Boris T. van Zaten et al(2016)</p>	<p>대륙적 규모의 경관을 평가하는 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파노라미오(Panoramio), 플리커(Flickr),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나타나는 경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게시물을 분석함. 그 결과 특히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자의 수가 존재하고 이들이 업로드한 이미지와 코멘트, 해시태그가 있어 경관을 평가하는 데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p>
<p>“인스타그램 해시태그(Hashtags) 분석을 통한 방문객들의 지오사이트 인식에 대한 분석” , 박민영, 박경(2017)</p>	<p>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방문객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6년 사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되어있는 경관 사진과 해시태그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방문객이 선호하는 지오사이트와 지형 및 지질 자원에 대한 인식 연구를 시행</p>
<p>“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 김예림, 손용훈(2017)</p>	<p>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벽화마을 경관 및 장소 정체성 및 선호경관의 이용자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SNS 중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게시물에 나타난 이화동의 경관자원을 분석하고 방문객들의 선호 경관을 파악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민, 이주민, 관광객의 벽화마을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선호 차이를 고찰</p>

2. 연구의 착안점

본 연구에서는 해안경관과 소셜미디어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해안경관에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쉼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관 선호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 자원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경관을 평가하는 대상이 해수욕장 위주로 진행된 것을 보아 해안경관을 평가하지만 해안경관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경향이 보였다.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해안의 특성을 도출 및 정리하고 이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경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현재 경관 실태를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지만, 경관유형 분류와 요소를 도출할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경관요소로 지정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소셜미디어 중 인터넷사진의 위치정보를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 진행한 연구와 1인 미디어에 나타나는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분석을 통한 연구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사진 정보 중 위치정보를 경관이라는 주제에 연계하여 연구하는 문헌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행연구들을 아직까지 텍스트 분석 또는 이미지 분석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중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현재 사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방문자가 바라보는 해안경관의 자원과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게시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분석하여 기존의 해안경관에 관한 연구보다 입체적이고 다각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관자원과 요소를 실제 해안을

이용하고 방문한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본 경관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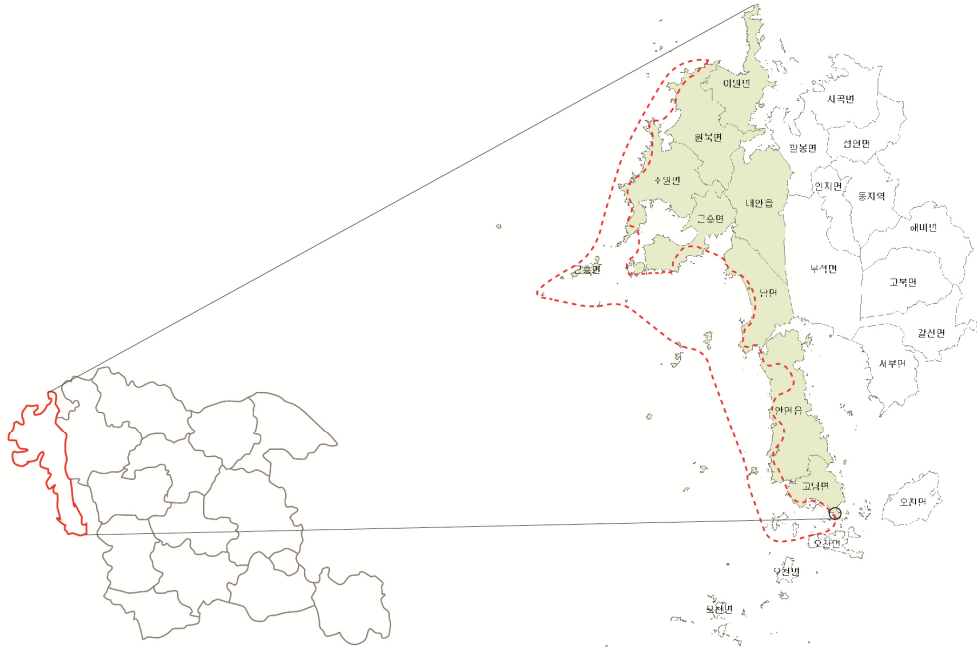
제3장 대상지 분석 및 태안해안의 가치인식 변화

1절 대상지 분석

1. 대상지 개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충청남도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에서부터 안면도에 이르는 다양한 자원을 지닌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서, 1978년 10월 20일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후, 1990년 3월 22일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행정 구역상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그림 3-1]과 같이 충청남도 태안군과 보령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나, 보령시의 장고도·고대도와 같은 남쪽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태안군(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에 속해 있다. 규모에 있어서는 해상면적 352.796km²와 육상면적 24.223km²로 총 377.019km²이며, 이는 서울의 1/2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지역은 학암포에서 남쪽으로 영목에 이르기까지 총 230km 길이의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사구·갯벌·일몰 등 다양한 경관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학암포·만리포·몽산포·기지포·방포 등 25개의 해수욕장과 외도·장고도 등 4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총 72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어 2016년 기준 약 1,100,000여명의 탐방객(KNPS, 2017)이 방문하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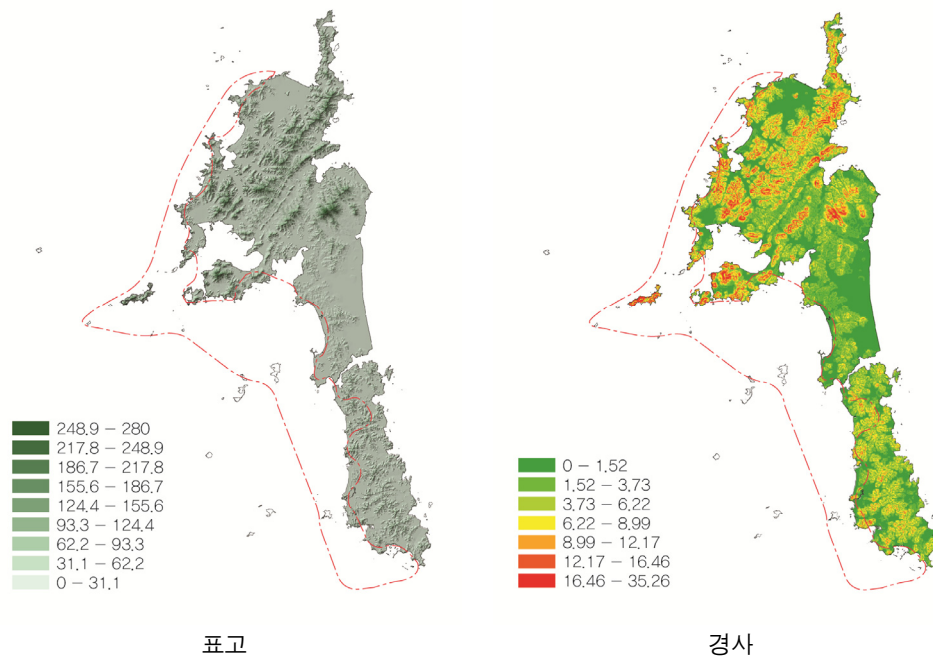
[그림 3-1] 대상지 개요

2. 자연환경 분석

(1) 지형·지세

지형적 특성으로 태안반도는 [그림 3-2]과 같이 백화산(284m)을 중심으로 철마산(213.5m), 이화산(171.7m), 성대산(148.6m) 등 300m 미만의 저산성 산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산맥이 발달되어 있다. 태안반도의 전체적인 경사도는 5-30° 사이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10-30° 정도이나, 남부지역에서는 10° 미만으로 저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으로 선형의 형태를 지니는 태안반도는 일부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쪽지역의 경우 서해안과 접하고 있어 해안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씨스택, 기암절벽 등의 해안경관 자원이 해수욕장 주변에 분포하여 우수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화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림 3-2] 태안반도 지형

(2) 수계

태안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수계는 7개의 지방하천과 125개의 기타 소하천으로 총 132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태안지역의 하천은 1·2차수의 소규모적인 자연수로, 10km 이내의 길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유로가 짧아 수계망을 갖추어 수자원을 활용하기보다 해안을 향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970년대 가로림만, 천수만 등의 대규모 갯벌이 분포하였던 지역에 방조제와 담수호를 건설하여 각종 용수의 저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담수호의 건설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이 분포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되어, 현재 남아있는 대규모 갯벌은 총 면적 80km²의 가로림 갯벌이 있다.

태안반도의 해안지역의 경우 위치적·지형적 특성상 주변 해안지역에 비해 크게 돌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해안 침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어 복잡한 만곡이 발달되어 있다. 해안 침식의 영향과 함께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여타 해안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만에는 갯벌이 발달하면서도 해식작용으로 백사장이 함께 발달되는 특징이 있다. 백사장의 발달은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불러와 태안지역 내에 학암포·천리포·만리포·꽃지 등 총 39개의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는 해수욕장은 총 32개이다.



[그림 3-3] 태안반도 수계



● 주요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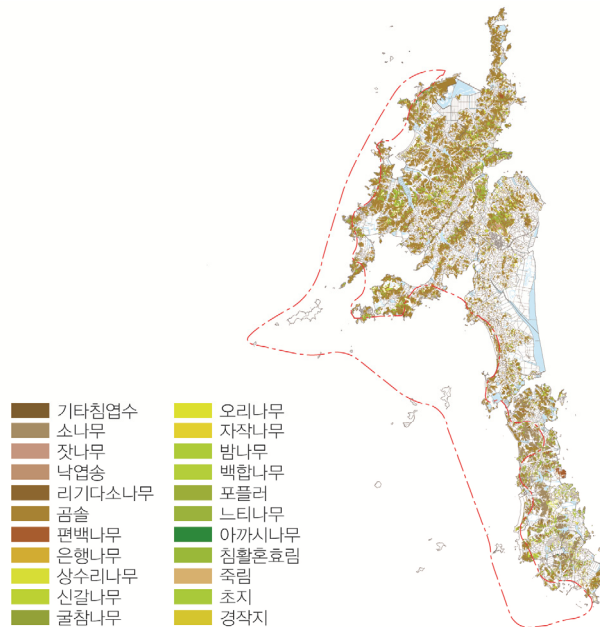
[그림 3-4] 주요 해수욕장 분포

(3) 식생

태안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 위도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도의 차이는 식물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태안에 나타나는 주요 식물 군락의 분포는 [그림 3-5]와 같다. 태안지역에 나타나는 식물 군락은 주로 곰솔, 소나무, 굴참나무,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안면도의 경우 천연기념물 제 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지역과 직접 접하는 태안반도에는 사구식생이 존재하며, 주로 학암포, 신두리, 기지포, 바람아래 해수욕장 일대에 갯그렁 군락, 갯방풍 군락, 통보리사초 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해안선을 따라 방풍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곰솔 군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분포하고 있다. 해안가 곰솔 군락지는 해솔길 및 캠핑장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방문객의 이용이 활발한 공간이 되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림 3-5] 태안반도 식생

3. 인문환경 분석

(1) 접근성

태안반도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태안해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1980-90년대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태안해안으로의 접근성 높아졌으며, 이용 역시 활발해졌다. 태안반도의 도로망은 [그림 3-6]과 같으며, 태안반도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는 32번 국도와 77번 국도가 있다. 77번 국도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남측 지점인 가로림만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용도가 높으며, 96번·634번 등의 지방도가 태안해안으로 직접 연결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과 전라남도 무안군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뿐 아니라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서해안과 접하는 해안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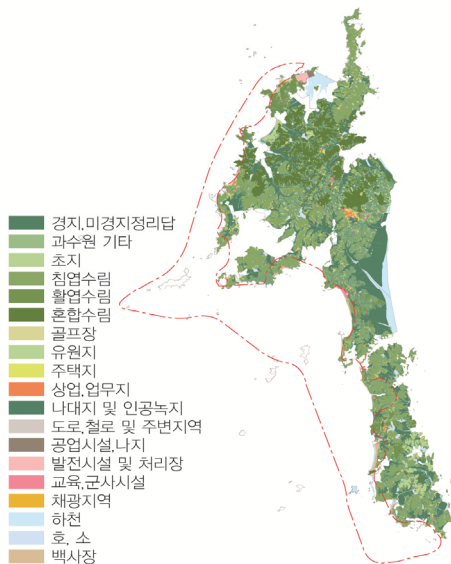
[그림 3-6] 태안반도 도로망

(2) 국립공원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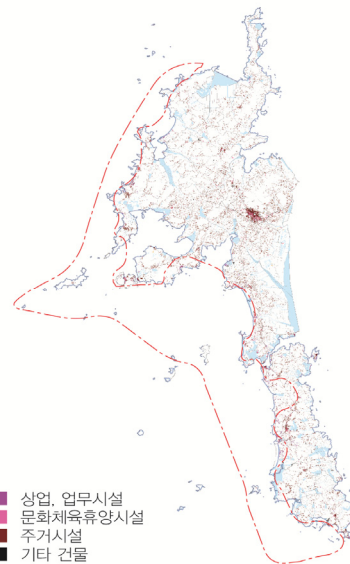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용도지역은 [그림 3-7]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있으며, 국립공원 주변의 경우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태안반도의 토지는 [그림 3-7]과 같이 산림, 초지, 논, 밭 등 녹지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안선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지역, 백사장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백사장은 전체 면적의 0.69% 정도로 적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태안지역 전체 백사장의 90% 이상이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변 건물 및 시설은 [그림 3-8]과 같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업·업무시설과 문화체육휴양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상업·업무시설은 숙박업소(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가 주를 이루었고, 문화체육휴양시설에서는 캠핑장과 휴양림 및 야영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리아스식 해안에 위치한 30여개의 백사장을 따라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지역의 활발한 이용과 함께 상업지역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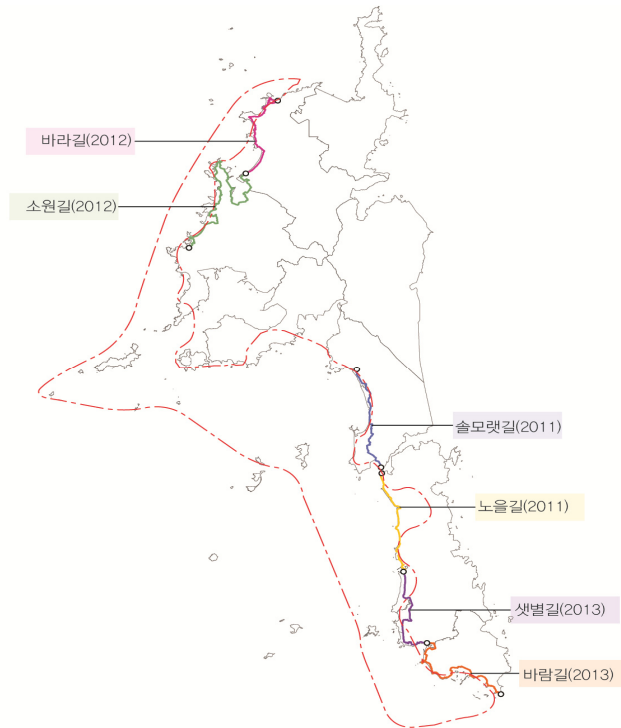
[그림 3-7] 토지이용현황



[그림 3-8] 건물 및 시설 현황

(4) 태안해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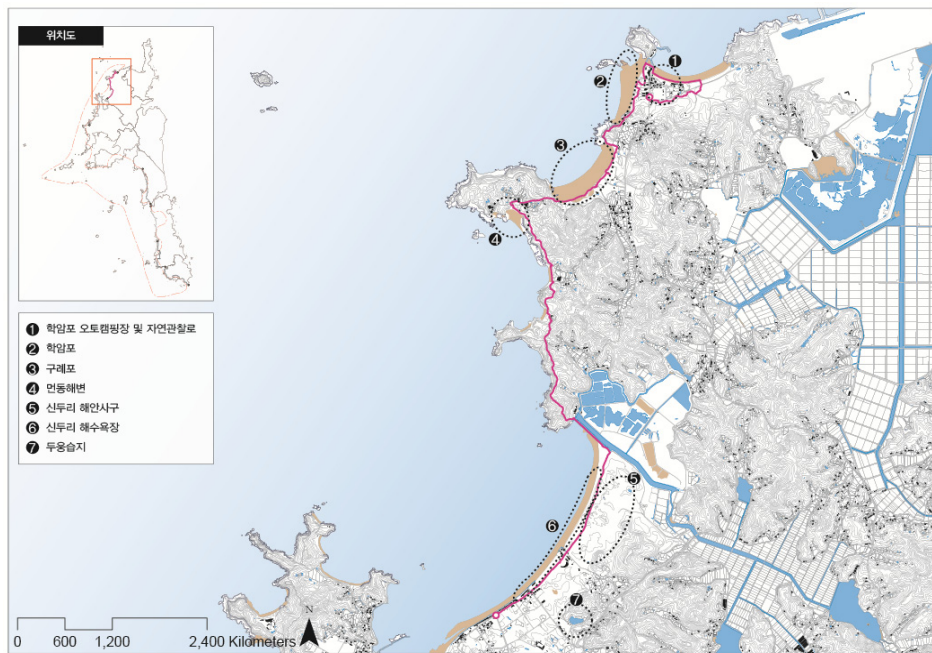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변길은 여름철 물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광방식과 단순한 탐방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계획되었으며, 걷기를 활용한 탐방행태를 반영하여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살아 숨 쉬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2007년 원유 유출사고로 수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 감소로 침체된 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남녀노소 및 사회적 약자에게 공원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성격을 포함하였다. 태안 해변길은 [그림 3-9]와 [표 3-1]과 같이 학암포에서 영목항까지 약 100km 구간에 조성된 가로로써, 육지코스 6개와 해상코스 1개 총 7개의 코스로 구간이 설정되었으며, 각 구간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해변 길 조성으로 과거에 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방문객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변길 조성 전보다 다양한 경관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9]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1) 바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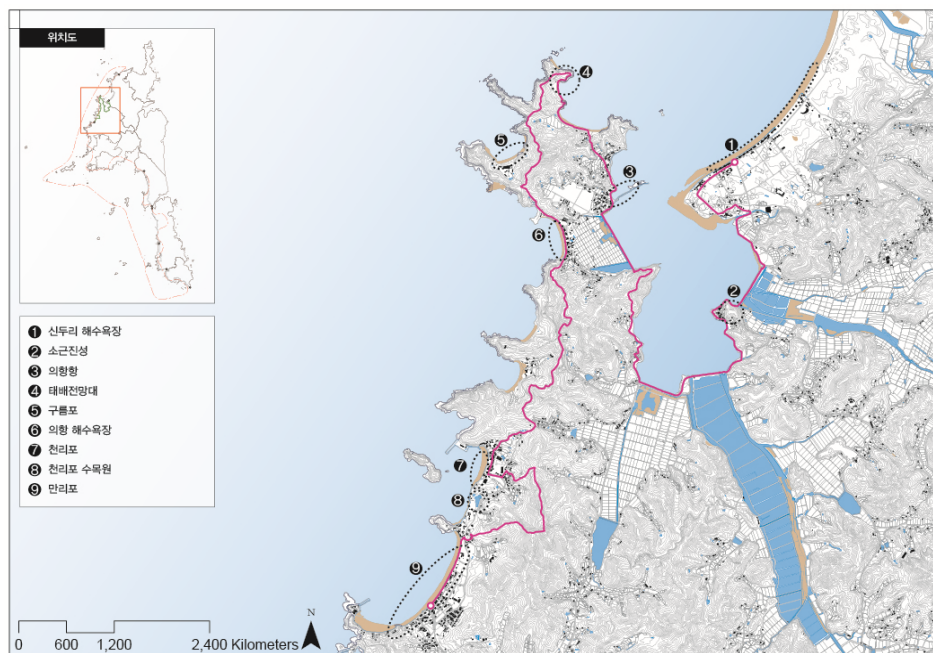
바라길은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 길 중 제1코스로 학암포에서부터 신두리해변까지의 총 길이 12km, 전체 구간 탐방에 약 4시간정도 소요되는 구간이다. 바라길에서 ‘학암포-구례포-면동-신두리’로 이어지는 해변과 숲길을 걷다보면 숲내음과 바다내음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구간에는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와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두웅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만 관찰되는 특색 있는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바라길의 주요 자원으로는 학암포 자연관찰로, 분점도, 구례포, 면동해변과 신두리 해안사구, 두웅습지 등이 있으며, 바라길 구간과 경관자원은 아래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태안해변길 제1코스 바라길 구간과 주요 자원

2) 소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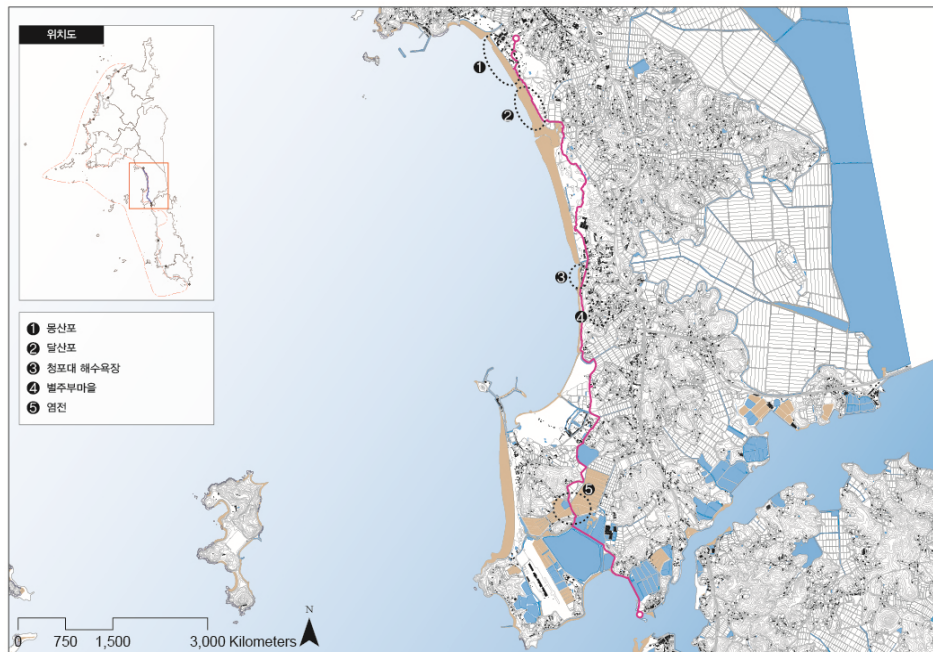
소원길은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 길 제2코스로 신두리 해변에서 만리포까지의 구간으로, 총 길이는 22km이며, 전체 구간 탐방에 약 8시간정도 소요되는 해변 길 구간 중 가장 길다. 소원길 구간은 원유 유출사고가 일어난 지역으로 생태자원·관광 등 자원이 유실되었던 지역이나,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곳이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지정된 천리포 수목원과 천리포 해수욕장,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만리포 해변이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원길 구간에는 소근진성, 개목항, 모항항 등 역사·문화유적과 항구들이 존재하여 자연·역사·문화 경관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소원길 구간과 주요 자원은 아래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태안해변길 제2코스 소원길 구간과 주요 자원

3) 솔모랫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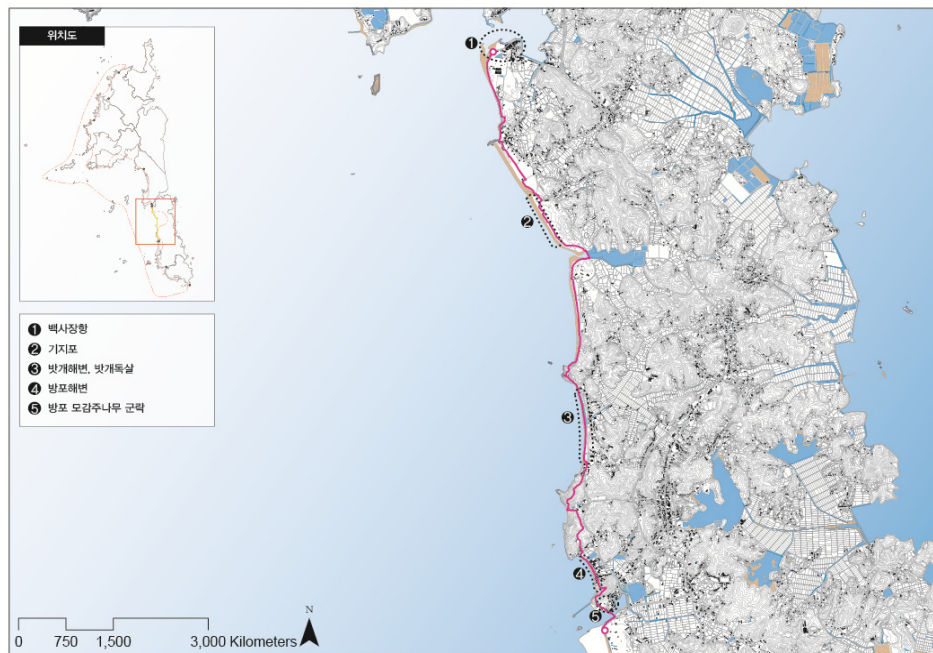
해변길 제3코스인 솔모랫길은 몽산포에서 드르니항까지의 구간이며, 탐방로는 13km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탐방에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솔모랫길 코스는 울창한 곰솔림에서의 산책과 기수역(염습지)구간에서 해안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몽산포 자연관찰로를 따라 탐방, 백사장에 있는 모래포집기와 천일염전 등을 만나볼 수 있어 아이와 함께 탐방할 경우 자연경관 감상과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청포대 해변 끝에 있는 별주부전망대에서 넓게 펼쳐진 몽산포해변과 자라바위도 감상할 수 있으며, 솔모랫길 구간과 주요 자원은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태안해변길 제3코스 솔모랫길 구간과 주요 자원

4) 노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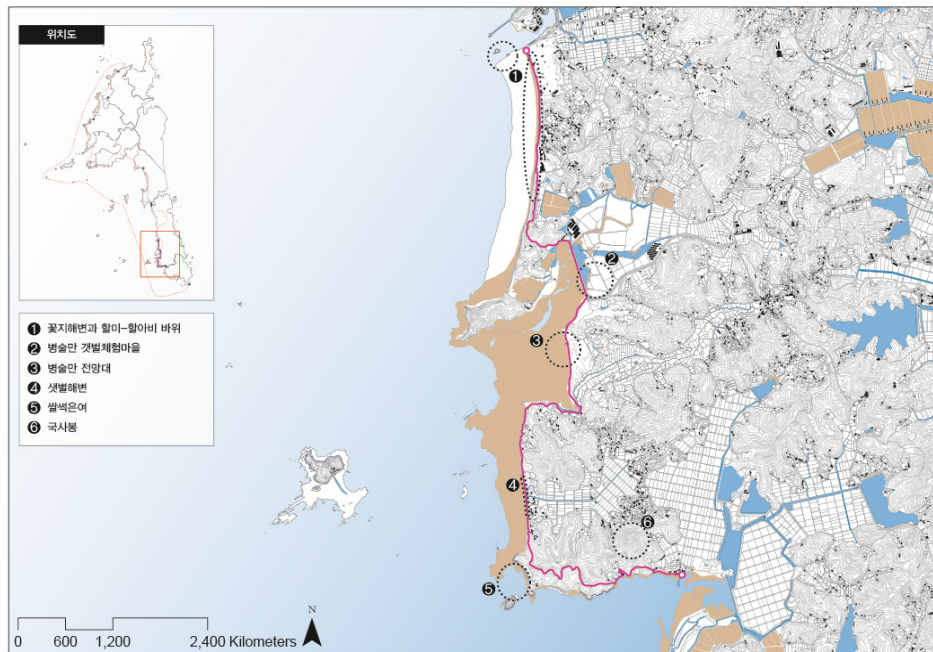
노을길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변 길 중 바라길, 소원길과 함께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코스로, 백사장항에서 꽃지해변까지의 구간이며, 총 12km 길이의 약 4시간이 소요된다. 노을길은 ‘삼봉-기지포-방포’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울창한 곰솔림 분포하여 해변과 숲속을 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코스의 특징으로 밧개독살과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된 방포 모감주나무 군락이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3대 낙조명소로 손꼽히는 꽃지해변 할미-할아비바위가 위치하여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해변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곳이다. 또한 노을길 구간에는 노인과 교통약자가 편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무장애코스인 ‘천사길’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3-13] 태안해변길 제4코스 노을길 구간과 주요 자원

5) 셋별길

셋별길은 노을길이 종료되는 지점인 꽃지해변에서 시작하여 황포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총 길이 14km에 탐방에 약 4시간 소요된다. 셋별길은 다른 구간에 비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공간과 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 자원으로 고려시대 군사요충지로 이용되던 병술만과 조선시대 세곡선이 자주 좌초되었던 쌀찍은여 해변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해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암괴석이 다른 해변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안면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국사봉에서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 마련되어 있어 해안경관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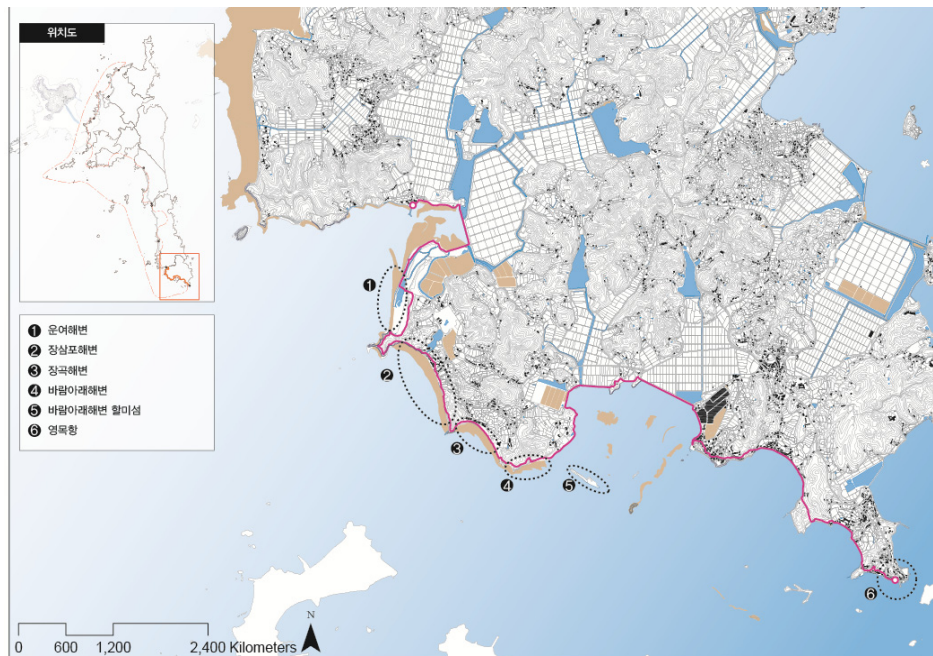


[그림 3-14] 태안해변길 제5코스 셋별길 구간과 주요 자원

6) 바람길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중 마지막 코스인 바람길은 황포에서 영목항까지의 구간이며, 길이는 15km이고 전체 구간 탐방에 약 5시간정도 소요된다. 바람길의 주요 자원인 바람아래 해변은 썰물시 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바다와 해안사구, 곰솔림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한다. 바람아래해변의 할미섬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인 멸종위기종 2급 표범장지뱀 서식지가 있어,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의 산란,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이기도 하다. 바람길은 외지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안면도 서남쪽의 해변과 포구, 마을을 지나는 특징이 있으며, 태안해변길 최남단에 위치한 영목항은 매년 말에 해님이 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이 많은 장소이다.

이 외에도 운여해변, 장삼포해변, 바람아래해변과 옷점항의 포구마을 등 아름다운 풍경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지만, 태안에 위치한 여타 코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 및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3-15] 태안해변길 제6코스 바람길 구간과 주요 자원

[표 3-1]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길

코스	구간	길이	소요 시간	내용	주요 자원
바라길	학암포-신두리	12km	약 4시간	학암포-구례포-먼동-신두리로 이어지는 해변과 숲길을 거닐다 보면 산림향과 바다내음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와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두웅습지에서는 독특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학암포자연관찰로, 분점도, 구례포, 먼동, 신두리사구, 두웅습지
소원길	신두리-만리포	22km	약 8시간	원유 유출사고가 일어난 곳이지만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끝에 본 모습으로 돌아온 장소이다.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지정된 천리포 수목원과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 중 한 곳으로 꼽힌 만리포가 있다.	소근진성, 개목항, 구름포, 천리포수목원, 만리포, 모항항, 파도리
솔모랫길	몽산포-드르니항	13km	약 4시간	곰솔림에서 산책할 수 있는 구간이다. 기수역(염습지)에서 해안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청포대 해변 끝에 있는 별주부전망대에서 자라바위와 몽산포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염전을 지나게 되어 교육적으로도 우수한 구간이다.	몽산포자연관찰로, 몽산포모래포집기, 습지, 별주부마을자라바위, 별주부전망대, 천일염전
노을길	백사장항-꽃지	12km	약 4시간	삼봉-기지포-방포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울창한 곰솔림이 존재한다. 두여 전망대에서는 독특한 습곡지형이 내려다보이며 우리나라 3대 낙조장소로 손꼽히는 꽃지 할미-할아비바위가 있다.	백사장항, 천사길, 기지포자연관찰로, 뱃개독살, 방포 모감주나무군락지, 꽃지꽃다리
셋별길	꽃지-황포	14km	약 4시간	병술만은 고려시대 군사요충지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며, 몽돌해변인 셋별해변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쌀썩은여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다.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셋별해변, 쌀썩은여, 병술만 갯벌체험마을, 국사봉
바람길	황포-영목항	15km	약 5시간	썰물 때 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바람아래해변에서 수려한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태안해변길 최남단에 위치한 영목항은 매년 말에 해넘이 축제가 열린다.	장삼포염전, 바람아래할미섬, 영목항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절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가치 인식 변화

1.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본 연구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분석에 앞서 대상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목받는 경관자원과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가치인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적 흐름은 태안해안에 해수욕장이 처음 지정되기 시작한 후에 태안해안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1940-1980년을 시작으로 이 후 태안해안에 대한 인식을 20년 단위로 나누어 1980-2000년, 2000년 이후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1940-1980년

근대 이전 태안해안은 지리적, 군사상의 이유로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다소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¹¹⁾ 하지만 근대 이후 태안해안은 민간에 개방되었으며, 1940년 만리포가 해수욕장으로 처음 개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용이 시작되었다. 1940년 만리포의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을 시작으로 천리포, 만리포, 몽산포 등 점차 태안의 다른 해안지역에서도 해수욕장으로써 활용을 시작하였다.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사람들의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며, 국토개발의 측면에서 태안해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1-73년 태안반도의 염전개발 및 천해지역의 양식장 개발, 계룡산과 속리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도록 하는 권역별 국토개발 청사진 계획안이 제시되었고, 수산·관광·공업 등 해역을 통해 산업간 균형을 갖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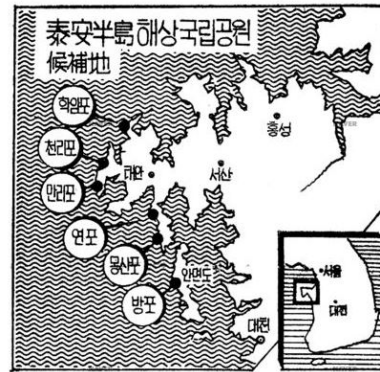
11) 고(古)문헌에 나타난 사적자료를 통해 과거 태안해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태안해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으나,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유의 대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문헌에 묘사된 태안해안은 조세를 옮기던 조운선이 자주 파선되는 장소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함과 걱정을 갖게 하는 바다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해안 경관을 대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인식이 동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경관을 향유하기보다 운하를 만들거나 태안반도를 굴착하여 조운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써 개발 및 이용의 대상으로 인지되어 왔다. 또한 이 일대는 예로부터 왜구(倭寇)를 비롯한 외래의 침입을 빈번하게 받아 성곽(城廓)·전적지 등의 역사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특징이 있다.

는 임해지역 유형화 개발을 계획하였다. 이 때 태안반도 연안지역은 수산 및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태안해안을 관광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태안해안은 관광의 측면뿐 아니라 개발·계획의 공간으로서 인지되어, 기존의 기능적 활용이 미비하였던 지대를 개발하고 경지면적을 늘리고자 1977년 삼교천지구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최대 방조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개발과 함께 1977년 건설부는 서해안의 관광자원보존과 해안수질보존 등 자연자원 보전과 수도권과 인접한 새로운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태안반도 일대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군사적 이유로 사람들의 이용이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태안해안은 해수욕장의 개장과 함께 개발·계획의 대상이자 관광·휴양의 공간으로서의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임해지역 유형화 - 태안해안 관광해역 지정

태안해안 해상국립공원 설정

[그림 3-16] 1940-80년대 태안해안의 국토개발과 관광개발

(사진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표 3-2] 1940-80년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연도	신문의 주요 내용	구분
1940	만리포 해수욕장 설정	관광개발
-	천리포(1955)·만리포(1957)·몽산포(1970)·학암포(1968)·꽃지(1989) 등 순차적으로 태안해안의 해수욕장 개장 시작	관광개발
1971	국토개발 청사진 권역별 계획안 제시	국토개발
1973	입해지역 유형화 개발	국토개발
1977	건설부 태안반도일대 해상국립공원 지정검토	관광개발
-	산지개발도 적극추진 정부	국토개발
1980	건설부 13개 국립공원 레저센터로 개발	관광개발
-	관광지개발사업 활기	관광개발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여 작성

(2) 1980-2000년

1980년 이후 국토개발·계획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졌던 중부권 및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70년부터 시작된 태안 및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 열기는 1980년대에도 이어져왔으며, 1980년부터 국토를 확장하기 위한 간척지 및 산지개발사업이 계획 및 시행으로 태안해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에는 전국도로망을 정비·확충하여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률을 높이고 영·호남 횡단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지역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¹²⁾ 이를 통해 태안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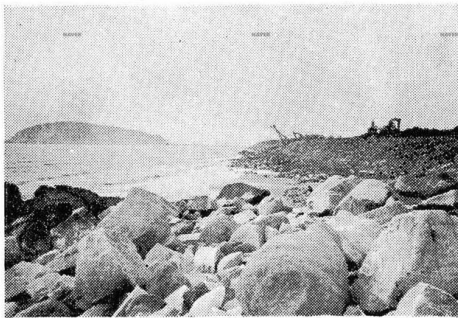
국토개발 및 계획이 추진되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열기도 더해갔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서해안 개발과 함께 나타난 또 다른 과제는 해안관광자원의 개발임을 언급하면서 서해안국립공원은 관광개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동해안에 집중되었던 관광객을 서해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대단위 관광단지로서 개발될 잠재력이 있는 공간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¹³⁾ 이에 따라 서산해안국립공원 내에 있는 청포대

12) 대전·영동·광주권 중점개발. 경향신문(1980.09)

해수욕장이 대규모 위락단지로 개발되었으며, 태안의 해안코스를 소개하는 등 태안해안이 서해안의 해안 관광 거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개발 및 관광개발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함께 대두되기 시작했다. 어리굴젓의 본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서산간척지에서 방조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간월도는 섬이 방조제로 연결되어 육지로 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이어오던 생업을 잃게 되었다. 또한 서산간척지 담수호가 서해안 최대의 새로운 철새 서식처로 등장하면서 해안생태계 및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후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블루벨트를 조성하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지난 70년대 이후 경제개발로 인해 심화된 해양오염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¹⁴⁾

이처럼 1980-2000년대에는 국토개발 및 관광개발이 가속화되면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함께 등장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태안은 서해안권역 개발과 함께 해안 관광개발의 거점으로 인지되면서 동시에 해양자원의 보고로서 환경보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서산간척지 방조제 건설



서산간척지의 새로운 철새도래지

[그림 3-17] 1980-2000년대 태안해안의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사진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3) 개발 열기에 찬 중부권-서해안. 매일경제(1986.02)

14) 해양시대 자원보호 관제와 전망... 「자원보고」 메탈라간다. 동아일보(1992.07)

[표 3-3] 1980-2000년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연도	신문의 주요 내용	구분
1981	서산해안국립공원 확정 6개 해수욕장 집단지구 지정	관광개발
1984	여름철에 가볼만한 해상국립공원 3곳 “역사의 숨결” 간직한 신비의 천연학습장에서 서산해안 소개	관광개발
1985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개발계획 본격추진	국토개발
-	서산간척지 벽해상전 5년…옥토 6천7백 만 평 조성, 매립지 소유권과 활용·환경문제 대두	환경보전
1986	개발 열기에 찬 중부권-서해안	국토개발
1988	충남 청포대해수욕장 대규모 위락단지로 개발	관광개발
1989	서산에 새 철새도래지 발견	환경보전
-	마구잡이 매립에 “서해안 병든다”	환경보전
-	관광협 서해안 코스개발 답사 나서…	관광개발
1990	태안을 공해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나…대대적인 환경운동을 벌여야한다	환경보전
1992	해양시대 자원보호 과제와 전망… ‘자원의 보고’ 가 메말라간다	환경보전
1998	서산 간척지 공사 이후 어패류 생태계 큰 변화	환경보전
1999	인천-당진-광주 고속철건설 추진	국토개발
-	태안 앞바다 규사광업권 남발 생태계 파괴 우려	환경보전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여 작성

(3) 2000년대 이후

1990년대부터 대두되었던 태안해안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해양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심각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에는 한반도 해안선을 지키려는 보존 운동으로 한국판 내셔널 트러스트 역사모(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가 설립되어 서해안 태안반도의 신두리 해안 사구(砂丘), 태안군 마도(馬島), 서해안 식생군락의 보고인 천리포 수목원 등을 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환경보전운동을 추진했다.¹⁵⁾ 이러한 흐름에 따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태안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태안의 자연경관에 대한 가치가 높게 인지되기 시작

15) 내셔널 트러스트 역사모, 해안선 보존운동. 연합뉴스(2000.05)

했다.

하지만 2005년 국내 갯벌이 난개발 등으로 최근 18년간 25%가 급감했다는 발표와,¹⁶⁾ 2007년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나면서 해안 보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대두되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약 1년간의 노력 끝에 태안해안은 사고가 있기 전의 모습으로 복원되었고 다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나, 해안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 및 경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관공서 및 국가기관은 친환경·생태적인 관광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태안해안을 사계절 빼어난 경관감상의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태안해안의 자연·역사·문화 경관을 관광서비스로써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20km 규모의 ‘해변길’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서해안권을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와 갯벌·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¹⁷⁾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의 대표적 여름 휴양지인 꽃지해수욕장의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침식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 및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¹⁸⁾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IUCN 태안해안국립공원 II카테고리 인증

[그림 3-18] 2000년 이후 태안해안의 환경보전

(사진자료 : 월간조선, 연합뉴스)

16) 우리나라 해안선 100년 새 26% 줄어. 세계일보(2010.06)

17) 동서남해안 거점 12곳 ‘휴양·생태벨트’ 조성된다. 충청일보(2014.02)

18) [이슈-해안침식 심각] 해수욕장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환경미디어(2016.03)

[표 3-4] 2000년 이후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 과정

연도	신문의 주요 내용	구분
2000	내셔널 트러스트 역사모, 해안선 보존운동 시작	환경보전
2001	충남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천연기념물 지정	환경보전
-	서해안고속도로 완전 개통	국토개발
2005	국내 갯벌 18년새 25% 급감	환경보전
2007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발생	환경보전
2008	환경부, 자연 친화 ‘국립공원 생태관광’ 도입 아름다움 되찾은 태안반도 해수욕장, 완전한 복구는 아직...	관광개발 환경보전
2009	충남도 “안면도꽃지 ‘꽃테마파크’ 로 활용”	관광개발
2010	우리나라 해안선 100년 새 26% 줄어	환경보전
2011	태안에 120km 규모 ‘해변길’ 조성사업	관광개발
2012	태안 해안선 ‘실종’ ...1년새 30m 후퇴	환경보전
2014	동서남해안 거점 12곳 ‘휴양생태벨트’ 조성	관광개발
2016	태안군 ‘IUCN 국립공원’ 지정, 명품 해양도시로 거듭	환경보전
-	[이슈-해안침식 심각] 해수욕장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환경보전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여 작성

2. 태안해안의 가치 인식 변화의 종합

고문헌에 드러난 태안해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가치를 인정하여 시문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였던 동해안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당시 조운선이 자주 파선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태안해안을 불안함, 두려움 등의 대상으로 인지하였으며, 경관을 감상하기보다는 조운선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하를 개발하고자 했던 장소로써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안해안은 과거 왜구를 비롯하여 외래의 침입이 잦아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였기에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1940년에 태안해안의 만리포가 해수욕장으로 처음 설정되었고 1955년 이후 만리포를 비롯하여 학암포, 천리포 등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비로소 사람들은 태안해안을 이용하며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통체계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이는 동해안권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관 및 생태적 자원으로써 태안지역의 가치가 조명 받으며, 국토개발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관광의 목적으로 국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해안관광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에 태안반도 일대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태안해안의 우수한 경관자원과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여 해안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안지역을 대상으로 과다한 국토개발 및 관광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태안해안은 환경보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2001년 신두리 해안사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 자연경관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여 태안해안의 경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제4장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경관자원 및 특성 분석

1절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1.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자료 중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과 경관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관자원과 경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태안’을 검색어로 설정하고 2016년 한 해 동안의 게시물 중 경관자원이 나타난 사진 9,110장을 분석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EXIF-Pilot’ - ‘KLT2000-TEST’ -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된 텍스트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정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경관자원에 대한 단어의 빈도 분석을 통해 방문객이 인지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주요 공간과 그 안에서의 행태 및 경관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된 텍스트의 추출을 목적으로 위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총 23,099개의 엑셀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단어는 형태소마다 각각의 빈도수가 측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단어를 하나의 대표 단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였다.¹⁹⁾ 또한 경관분석에 관계없는 단어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²⁰⁾ 따라서 텍스트 분석결과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총 3회의 정제를 실시하였고, 정제 결과 총 2,786개의 데이터로 정리되었으며, 전체 데이터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이때 인스타그램 특성상 이용자들은 텍스트와 해시태그를 중복해서 올리는 경우와 장소를 중복해서 해시태그를 설정

19) 예를 들어 ‘힘든, 힘들었찌, 힘들다야, 힘들구나, 힘들당’ 등의 유사한 단어를 ‘힘든’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20) 경관분석과 관계없는 단어로는 ‘힝, 산소, 산본, 산발머리, 사회초년생, 사치인 듯’ 등이 그 예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 단어의 빈도수는 텍스트의 누적 빈도수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9,110장의 사진의 수와 빈도수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누적 빈도수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더 많이 방문하고, 그 안에서의 행태와 느낌을 많이 표현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 추출한 사진과 작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12,414개의 빈도수 중 ‘기타’를 제외한 79,908개를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태안’이 9,631개(12.05%)의 빈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여행(5,390, 6.75%), 바다(3,535, 4.42%), 일상(3,108, 3.89%), 안면도(2,485, 3.11%), 사진(1,681, 2.1%), 꽃지해변(1,176, 1.47%), 서해안(1,087, 1.36%), 셀카(997, 1.25%), 캠핑(951, 1.19%), 만리포(933, 1.17%), 풍경(873, 1.09%)·일몰(856, 1.07%)···’ 등이 도출되었다. 위의 키워드 들은 전체 데이터 중 유효 데이터의 85%를 차지하여 지역의 대표적 장소, 행태, 느낌 등을 표현하는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의 경관자원과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도출된 데이터를 장소, 행태, 계절별 방문빈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A	B	C	D	E	F	G	H	I	J
1	WORD	빈도수								
2	기타	92506	신두리해수욕장	253	재밌는	117	인물사진	81	데일리룩,dailylook	56
3	태안	9631	김성	252	갯벌제법	116	정말	81	매경,매경출판	56
4	여행,travel	5390	해안사구,사구	248	사진찍기	116	저녁	80	핀트	56
5	바다	3535	바람이	246	다시오고싶은	111	꽃축제(꽃보다사랑이많다)	78	dailypic	55
6	일상,데일리,daily	3108	데이트	246	도시오고싶은	111	꽃축제(꽃보다사랑이많다)	78	고프로,gopro	55
7	안면도	2485	데이트	241	자연,자연경관	111	비치바람맞기	78	시용함	55
8	사진,스냅,인생샷,photo	1681	꽃	237	리조트	110	국	78	출장	55
9	꽃지해변	1176	국내여행	233	안면도	109	바다,낚시	77	가족여행	54
10	서해안	1087	여행휴가	221	우정스타그램,친구	109	바다	76	당아지	54
11	플카,selstagram,플카	997	천리포수욕원	218	sky	108	연포해수욕장	75	포즈, pose	54
12	명칭	951	selfie	215	꽃축제	107	인생샷	75	beautiful	53
13	만리포	933	스냅	214	당일치기,여행	106	토요일, saturday	75	개국지	53
14	풍경	873	죽암포	213	주말여행	106	섬, island	74	담	53
15	일출	856	사냥	196	길,road	102	산투켓	73	조개캐기	53
16	중남	734	신나는	196	안면도여행	102	하루종일	73	필름카메라	53
17	힐링	717	백과잉	195	죽은	102	기분	72	국	52
18	하늘	680	연휴	190	일요일, sunday	100	good	71	응산포요션,캠핑장	52
19	해변,해안,바다,beach,seaside	622	드라이브	189	가을바다	97	신	71	산	52
20	해변,해안,바다,beach,seaside	586	사막, desert	187	가을바다	96	아름	69	안면도자연휴양림	52
21	죽림	574	남해,출은	184	다들	94	여행여행	68	love	51
22	죽림	560	아침	183	맛있는	94	여행사진	68	원티	51
23	겨울, winter	556	필름,필레하루종일,플카,필레	178	영포해변	94	카라	68	ocean	50
24	죽림	549	백사장,항	177	햇빛,햇살	93	snap	67	summer	50
25	카메라, pentax,sony, 니콘, 광각	537	서산	173	휴일, holiday	93	푸레포	67	투모솔	50
26	가족여행, familytrip	508	오천만	168	꽃길행	92	신전트	67	요리,사창	50
27	종산포	502	김성사진	162	프레,부드러운	92	꽃겨울	67	서명	50
28	눈	501	비오는	161	꽃놀이	92	원뿔장	67	dog	49
29	해수욕장	483	반려견과여행,애견출반여행	153	경치,landscape,beautifulscen	91	완전한	67	photographer	49
30	해수욕장	473	출사	153	꽃놀이	91	해변길	67	꽃게	49
31	낚시	455	봄,spring	151	조개잡기	91	급(중풍)여행	67	꽃게	49
32	신두리,해안,사구	382	여우표승	149	꽃계다리	90	바람부는	66	어은,올로,캠핑장	49
33	서해,바다	378	천리포	148	사백	90	야경,nightphotography,nigh	66	필름사진	48
34	가을	354	전사상	148	워크샵	90	야경,tree	65	간월	47
35	여름	347	꽃길,tulip	147	유채꽃밭	89	꽃길행	65	부지,나무늘개,수욕장	47
36	아이폰,iphone,휴대폰,갤럭시	346	파도, wave	146	view	89	꽃길행	65	안개진	47
37	신두리	343	찰미곶,아비바위	145	원포	88	꽃길	65	백사장	46
38	갯벌	341	덕은,뚜겨울	145	원포여행	87	피크	64	피는	46
39	꽃길,축제	326	해질녘	135	어은,올해,수욕장	86	그림	63	vsocam	45
40	출은	324	아름다운	133	가지포	85	꽃	62	구경	45
41	sunset	317	이별,당	132	이별	85	겨울	62	시골	45
42	구름	311	갈매기	128	꽃길	84	flower	61	래인,해변길	45
43	sea	299	산책	127	ootd	83	silhouette	61	하늘과,바다,사이	45
44	바닷가	291	조개	127	가족여행	83	간사	61	happy	44
45	정북	289	목발	125	조용한	83	라리	61	가족,사진	44
46	거울,바다	282	점프,샤,점프,사진찍기	125	꽃길	83	올해	61	기억	44
47	lorea	281	수목원	121	nature	82	소나무	60	눈을,잡	44
48	추억, memory	280	느낌,느낌있는	120	바다여행	82	youth,lorea	59	사진,기사	44
49	정포대	279	은여해변	119	분위,기있는,분위,기좋은	82	원개,해수욕장	58	바다,류	43
50	landscape	278	대하,축제	118	바라길	81	nikon	57	신기함	43
51	가족	259	트래킹,trekking	118	보고싶은	81	대하	57	특별,여행	43

[그림 4-1] 데이터 전체 정제 결과

(1) 장소별

태안해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을 많이 방문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장소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면도’, ‘꽃지해변’, ‘만리포’, ‘몽산포’, ‘해수욕장’, ‘신두리 해안사구’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장소 키워드 분석의 전체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장소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해수욕장, 해변, 항구 위주의 공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태안을 대표하는 공간을 해변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A	B	C	D	E	F	G	H
1	WORD_수정	NR						
2	안면도	2485	바람아래해수욕장	37	인도교	8	철새도래지	3
3	꽃지해변	1176	파도리	37	유라기박물관	8	지유의길	3
4	만리포	933	파도리해수욕장	36	몽산포해수욕장	7	태안해안	3
5	몽산포	502	골프장	34	미르공원	7	태안해안길	3
6	해수욕장	473	자연휴양림	34	술술(은여해변)	7	힐링장소	3
7	신두리해안사구	382	정원 botanicgarden	34	이음방조계	7	습수염전	2
8	신두리	343	술술(은여해변)	31	몽돌박물관	6	구울동	2
9	갯벌	341	골프	24	남새섬	6	국사봉	2
10	바닷가	291	정산수욕원	24	몽돌습지	6	종굴	2
11	정포대	279	대하항굴계랑다리	22	망글마을	6	두여전망대	2
12	신두리해수욕장	253	의정리해변	22	몽돌화문산	6	빛산	2
13	해안사구,사구	248	골프해수욕장	21	사육해수욕장	6	명당	2
14	정리포수욕원	218	가솔안항구	20	석경이해수욕장	6	벚꽃배나무원림장	2
15	학암포	213	사구 sanddune.sandfills	19	절벽 cliff	6	선포대	2
16	팜카밀레허브농원팜카밀레.farmkz	178	대천해수욕장	18	간월사	5	습지	2
17	백사장항	177	태안해안국립공원	18	간월항	5	안면중류양림	2
18	서산	173	물온곳	17	골림평장	5	안동성	2
19	천리포	149	돌래일련평장	16	바닷길	5	오솔길	2
20	수욕원	121	안동항	16	바닷의언덕	5	원안해수욕장	2
21	은여해변	119	남방항	15	실리포해수욕장	5	욕지가되는 섬	2
22	트르니항	111	달산포해수욕장	15	일출명소	5	장고항	2
23	리조트	110	안면해수욕장	15	자갈해변	5	절 temple	2
24	마암포	94	골프캠핑장	14	전망대	5	장브리밭	2
25	방포해변	94	그린리지팜	14	재석강	5	정산포	2
26	유채굴밭	89	명소	13	해송캠핑장	5	태안항	2
27	어은돌해수욕장	86	셋별해수욕장	13	갈은곳	4	태안해안국립공원	2
28	가지포	85	신진도항	13	고은도래사장	4	태출암	2
29	연포해수욕장	75	재석포	13	근교	4	송나무마을	2
30	섬 island	74	마검포일련캠핑장	12	변산반도	4	해안공원	2
31	허브농원	73	연동해변	12	삼포포	4	간성받지않는곳	1
32	삼봉해수욕장	71	범빛캠핑장	12	정산포	4	습수생태물	1
33	구례포	67	별주부마을	12	조각정원	4	구룡포해수욕장	1
34	신진도	67	석경이오트캠핑장	12	장리포구	4	노적봉	1
35	해변길	67	자갈밭	12	홀리데이파크	4	망물전망대	1
36	모항항	65	태안암바다	12	거제도	3	대나무숲	1
37	해변가	65	학암포오트캠핑장	12	군불면	3	등대섬	1
38	다리	61	두여해변	11	김좌진장군생가	3	레저타운	1
39	빛개해수욕장	58	송돌해변	11	나만알고싶은곳	3	만남의장소	1
40	몽산포오션원림장	52	간월도	10	낙조명소	3	죽섬	1
41	산	52	부교	10	망암포구	3	송대포구	1
42	안면도자연휴양림	52	안면도수욕원	10	두여기해변	3	문동해변	1
43	모래사장	50	영목항	10	몽산포힐리데이파크	3	반섬	1
44	어은돌오트캠핑장	49	종개항	10	사찰 바다위절	3	삼봉해변길	1
45	간월	47	고남면고남리	9	셋별길	3	생태공원	1
46	꾸지나무돌해수욕장	47	구매항	9	소나무숲길	3	생태보전지역	1
47	백사장	46	염전	9	송나무숲	3	외죽마을	1
48	간월암	42	장산포해수욕장	9	안면도백사장	3	천나무숲	1
49	만다항	40	해상인도교	9	안면도백사장항	3	지표저수지	1
50	구룡포	39	브리밭	8	장곡해변	3	정정지역	1
51	갈을이해변	38	이태백캠핑장	8	조개부리마을	3	지유의숲	1
52							대배길	1

[그림 4-2] 장소 키워드

(2) 주요 활동·행태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의 사람들의 주요 활동 및 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활동·행태와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캠핑’, ‘출사’, ‘낚시’, ‘백패킹’, ‘드라이브’, ‘트래킹’, ‘갯벌체험’ 등이 도출되었으며, 결과 값은 [그림 4-3]과 같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의 활동은 크게 캠핑, 출사, 낚시, 트래킹, 갯벌체험, 레포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트래킹, 등산, 드라이브, 자전거 라이딩 등의 활동 이외에는 대부분의 활동이 해상 또는 해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가 해수욕장 및 해변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의 행태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1	WORD	빈도수				
2	캠핑	951	돌레길걷기	15	탐방	2
3	출사	690	자전거라이딩	12	한옥체험관	2
4	낚시	455	꽃게해루질	11	kitesurfing	2
5	백패킹	195	짚라인	10	고등어낚시	2
6	드라이브	189	풍등날리기	7	새우잡기	2
7	애견동반여행	153	게잡기	6	자전거캠핑	2
8	트래킹	118	레저	6	해양스포츠	2
9	갯벌체험	116	정상정복	6	국토대장정	1
10	백패킹	97	독살체험	5	꾸지나무골캠핑	1
11	물놀이	92	어촌	5	물질	1
12	조개잡기	91	개불개기	4	병술만어촌체험	1
13	캠퍼	87	꽃지안면도레포츠	4	빵게잡기	1
14	골프	62	자전거여행	4	생태체험	1
15	조개개기	53	장풍샷	4	수상스포츠	1
16	서핑	50	굴따기	3	신두리레포츠	1
17	구경	45	농활	3	안면도카트	1
18	바비큐	43	물장구	3	웨이크보드	1
19	해루질	42	바나나보트	3	칠게잡기	1
20	드론	38	수상낚시	3	한개도못잡음	1
21	등산	35	윈드서핑	3	해변승마	1
22	하이킹	31	진흙놀이	3	국토대장정	1
23	하이커	30	카약피싱	3	동호회	1
24	쭈꾸미	29	굴따기	3	레이싱	1
25	모래놀이	29	바나나보트	3	바위걷기	1
26	바지락캐기	28	윈드서핑	3	신두리레포츠	1
27	쭈꾸미낚시	21	고등줄기	2	웨이크보드	1
28	해수욕	21	고등어낚시	2	해변승마	1
29	ATV	17	사륜오토바이	2		
30	라이딩	17	새우잡기	2		
31	맛조개잡기	16	스노클링	2		

[그림 4-3] 주요 행태 키워드

(3) 계절별 방문 빈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계절별 방문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키워드 중 계절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계절마다 동반하여 나타나는 키워드를 함께 도출하였다. 계절별 키워드 빈도수는 봄 151개, 여름 347개, 가을 354개, 겨울 556개가 도출되었다. 해안의 특성상 해수욕장 방문으로 인해 여름철 키워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겨울’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겨울바다’ 키워드가 계절별 함께 나오는 키워드 중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태안이 여름보다 겨울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지됨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B	C	D	E	F	G	H
1	[봄]		[여름]		[가을]		[겨울]	
2	봄	151	여름	347	가을	354	겨울	556
3	봄나들이	10	여름휴가	221	가을바다	96	겨울바다	282
4	봄여행	5	여름바다	27	가을여행	54	겨울여행	83
5	봄바람	3	여름여행	12	가을하늘	39	겨울캠핑	3
6	봄꽃	1	한여름	7	가을바람	7	겨울나무	2
7	봄바다	1	여름방학	4	가을나들이	6	겨울바람	1
8			여름캠핑	4	가을캠핑	5	겨울출사	1
9			여름밤	2	가을밤	4		
10			여름사진	2	가을느낌	3		
11			여름꽃축제	1	가을낚시	2		
12			여름모임	1	가을축제	2		
13					가을냄새	1		
14					가을저녁	1		
15					가을풍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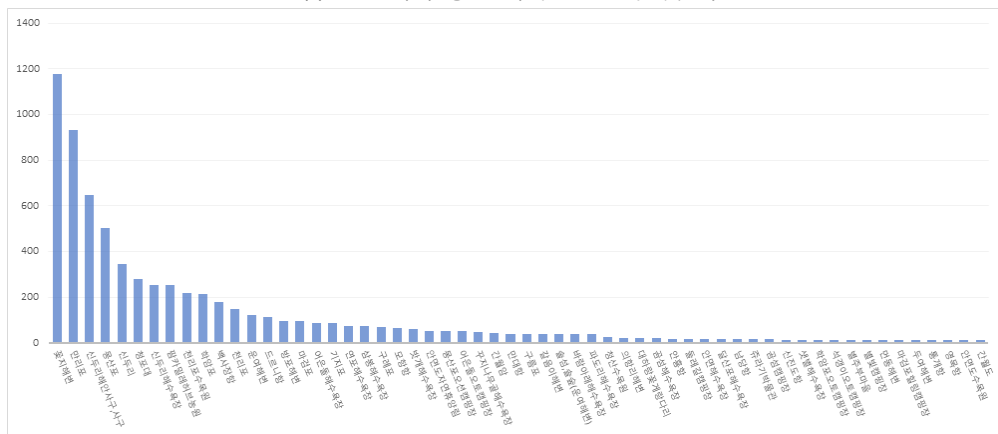
[그림 4-4] 계절별 방문 빈도

2. 경관분석을 위한 주요 공간 선정

앞서 분석을 실시한 장소 키워드는 ‘안면도·꽃지해변·만리포’와 같이 특정 장소명이 명시된 경우와 ‘해수욕장·갯벌·바닷가’와 같이 불특정 장소 및 공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혼재하였다. 불특정 공간은 지역의 경관자원 및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 공간에 대한 키워드는 제외하였으며, 장소가 명시된 공간 위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그림 4-5]와 [그림 4-6]과 같고, ‘꽃지해변’이 빈도수 1,176개로 전체 빈도의 16.8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장소이며, ‘만리포(933, 13.38%), 신두리 해안사구(649, 9.30%), 몽산포(502, 7.20%), 신두리(343, 4.92), 청포대(279, 4%)...’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WORD	A	B	C	D	E	F	G	H	I	J
빈도수(%)										
꽃지해변	1176(16.86)	삼봉해수욕장	71(1.02)	안동항	16(0.23)	간월도	10(0.14)	안동성	2(0.03)	
만리포	933(13.38)	구례포	67(0.96)	동래길캠핑장	16(0.23)	장상포해수욕장	9(0.13)	두여전망대	2(0.03)	
신두리해안사구	649(9.30)	모항항	65(0.93)	안면해수욕장	15(0.22)	구매항	9(0.13)	공소염전	2(0.03)	
몽산포	502(7.20)	맛개해수욕장	58(0.83)	달산포해수욕장	15(0.22)	이대역캠핑장	8(0.11)	지포저수지	1(0.01)	
신두리	343(4.92)	안면도자연휴양림	52(0.75)	남당항	15(0.22)	우장포해수욕장	7(0.10)	삼봉해변길	1(0.01)	
청포대	279(4.00)	몽산포오션캠핑장	52(0.75)	유라기박물관	14(0.20)	사동해수욕장	6(0.09)	동대포구	1(0.01)	
신두리해수욕장	253(3.63)	어음출오트캠핑장	49(0.70)	공섬캠핑장	14(0.20)	두충습지	6(0.09)			
망가밀레리브농원	251(3.60)	꾸지나무골해수욕장	47(0.67)	신진도항	13(0.19)	심리포해수욕장	5(0.07)			
천리포수목원	218(3.13)	간월담	42(0.60)	쌍봉해수욕장	13(0.19)	간월항	5(0.07)			
학알포	213(2.58)	만대항	40(0.57)	학알포오트캠핑장	12(0.17)	장산포	4(0.06)			
백사장항	180(2.58)	구룡포	39(0.56)	석강이오트캠핑장	12(0.17)	조개부리마을	3(0.04)			
천리포	149(2.14)	갈음이해변	38(0.54)	별주부마을	12(0.17)	두여기해변	3(0.04)			
운여해변	119(1.71)	술섬, 술섬(운여해변)	38(0.54)	별빛캠핑장	12(0.17)	망암포구	3(0.04)			
드르니항	111(1.59)	바람아래해수욕장	37(0.53)	안동해변	12(0.17)	장곡해변	3(0.04)			
방포해변	94(1.35)	파도리해수욕장	36(0.52)	마검포빌링캠핑장	12(0.17)	김좌친왕군생가	3(0.04)			
마검포	94(1.35)	정산수목원	24(0.34)	두여해변	11(0.16)	태을암	2(0.03)			
어음출해수욕장	86(1.23)	의항리해변	22(0.32)	통가항	10(0.14)	벚꽃벚나무캠핑장	2(0.03)			
가지포	85(1.22)	대학항곶개항다리	22(0.32)	영죽항	10(0.14)	태안항	2(0.03)			
연포해수욕장	75(1.08)	공섬해수욕장	21(0.30)	안면도수목원	10(0.14)	월안해수욕장	2(0.03)			

[그림 4-5] 위치 장소 키워드 빈도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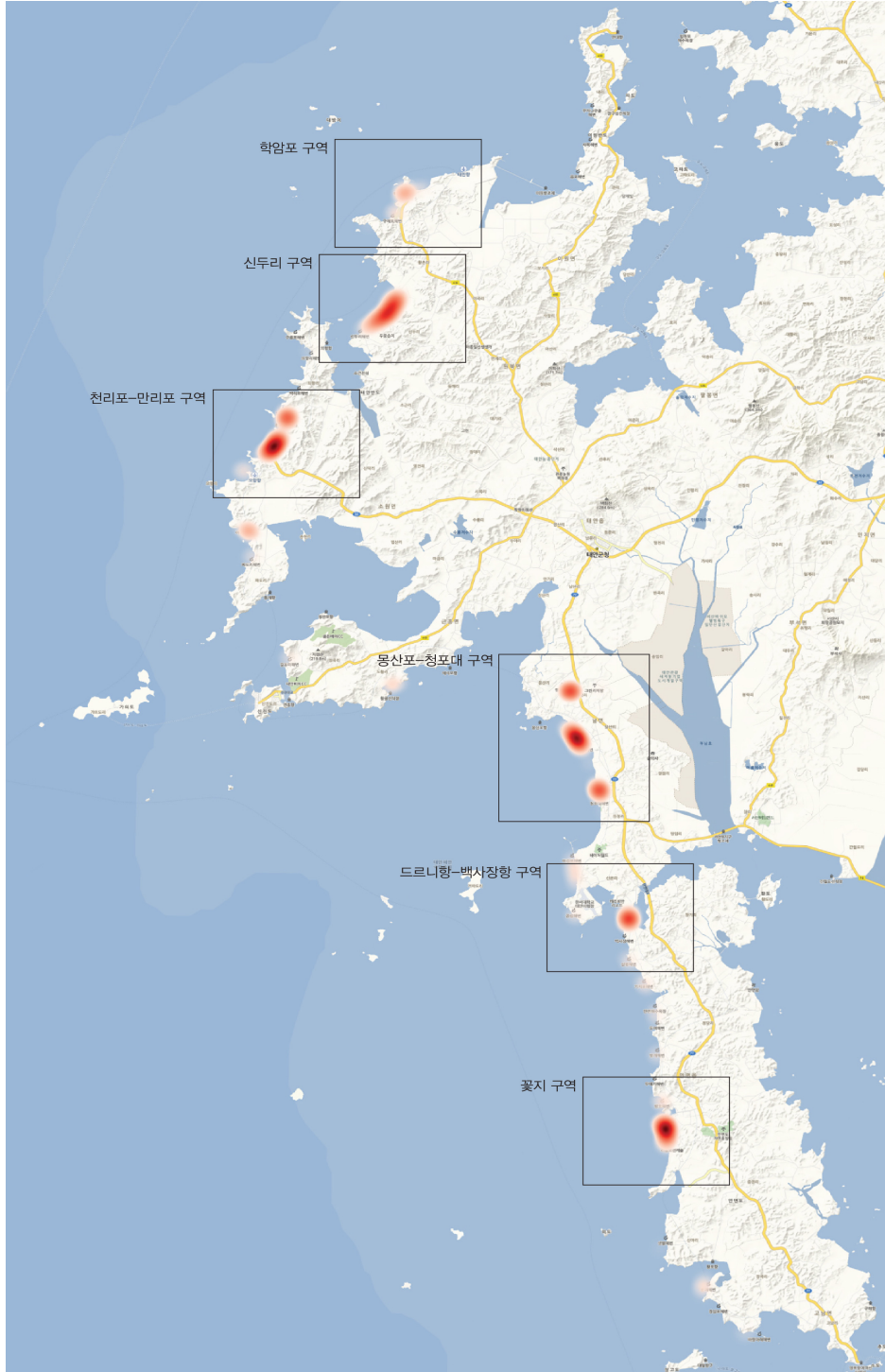
[그림 4-6] 위치 장소 키워드 빈도 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자 ArcGIS10.2.1을 이용하여 도출된 장소의 빈도수 데이터로 커널 밀도 분석(Kernel Density)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4-7]과 같이 총 6개의 구역이 주요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각 구역은 학ampo 구역, 신두리 구역, 천리포-만리포 구역, 몽산포-청포대 구역,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꽃지 구역이 분포하였다.

도출된 구역들은 방문객이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장소임을 가정하고, 각각의 구역별 경관자원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경관자원과 경관특성 분석에는 앞서 대상으로 삼았던 9,110장의 이미지 중 각 구역에 포함되는 세부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였으며, 총 3,433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각 구역에 포함되는 세부 장소는 [표 4-1]과 같고, 추출된 사진의 수는 학ampo 구역이 231장, 신두리 구역이 683장, 천리포-만리포 구역이 960장, 몽산포-청포대 구역이 643장,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이 234장, 마지막으로 꽃지 구역이 952장으로 나타났다.

[표 4-1] 구역별 세부 장소

구역	세부 장소	총 사진 수
학ampo 구역	학ampo 및 학ampo 오토캠핑장	231
	구레포	
신두리 구역	신두리 해수욕장	683
	신두리 해안사구	
	두웅습지	
천리포-만리포 구역	천리포	960
	천리포 수목원	
	만리포	
	모항항	
몽산포-청포대 구역	팜카밀레허브농원	643
	몽산포 및 몽산포 오션캠핑장	
	달산포	
	별주부마을	
	청포대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드르니항	234
	백사장항	
	대하랑꽃게랑다리	
꽃지 구역	꽃지해변	952
	방포해변	



[그림 4-7] 소셜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구역

2절 소셜미디어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과 경관특성 분석을 위해 앞서 도출한 6개 구역의 구역별 대표경관(Consensus Photograph, CP)을 선정하였다. 대표경관(CP)이란 특정 경관이 촬영된 사진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말한다. 동일한 사진의 수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경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도출된 CP는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의 주요 경관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주요 공간 6곳의 구역별 CP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특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은 총 31개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대표경관 이미지는 [표 4-2]와 같다. 또한 CP의 전체적인 분포는 [그림 4-8]에서 볼 수 있다.

학ampo 구역에는 3개의 CP가 도출되었으며, ‘학ampo 소분점도·학ampo 해변·구례포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다. ‘학ampo 소분점도’의 사진은 28장이 나타났으며, 솔섬을 주 대상으로 하여 바다·섬·모래사장·하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해안경관의 모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학ampo 해변’은 15장의 사진이 나타났으며, 탁 트인 학ampo 해변과 갯벌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구례포 캠핑장’의 경우, 솔숲에 둘러싸인 캠핑장 모습과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경관이 연출되었고, 이에 해당되는 사진은 총 8장이 나타났다.

신두리 구역의 경우 8개의 CP가 도출되었으며, ‘신두리 해안사구·사구 데크길·신두리 해변·신두리 해변 말뚝·억새골·모래조각페스티벌·해변 ATV·두웅습지’가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해당되는 사진은 60장이며, 사막을 연상하게 하는 모래언덕의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사구 데크길’은 33장으로, 초지 사이로 쪽 뺨은 데크길이 존재하며, 그 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신두리 해변’은 17장으로 순비기언덕 전망대에서 바라본 신두리해변의 전경이 담겨 있다. ‘신두리 해변 말뚝’은 16장으로 해안선·모래사장 등 수평적

요소들 가운데 홀로 수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다. ‘억새골’은 8장으로 탐방로 양옆으로 억새밭이 펼쳐져 있다. ‘모래조각페스티벌’은 5장이며 해변에 다양한 모래조각 작품 및 페스티벌 참가자와 구경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해변 ATV’는 3장으로 신두리 해변에서 ATV를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마지막으로 ‘두웅습지’는 2장으로 주변식생으로 위요되어 있는 두웅습지 전경이 있다.

천리포-만리포 구역에는 8개의 CP가 도출되었으며, ‘워터스크린·만리포 해변·천리포수목원 노을쉼터·낭새섬·만리포 절벽·만리포사랑노래비·만리포 방풍림·만리포 짚와이어’가 있다. ‘워터스크린’에 해당되는 사진은 31장이 있으며, 만리포 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서 경관의 주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었다. ‘만리포 해변’은 21장이 있고 넓게 펼쳐진 해변의 모습이 파노라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이 적어 조용한 분위기가 표현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노을쉼터’는 20장으로 천리포 해변 방향으로 설치된 울타리의 모양이 독특하며, 데크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시각적 방해요소 없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낭새섬’은 19장으로 천리포수목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낭새섬 전경이 담겨 있고, 물때에 따라 낭새섬으로 연결되는 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리포 절벽’은 10장으로 만리포 해변의 잔잔함과 다르게 절벽에 부딪혀 생기는 파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절벽에 위치한 소나무의 형상도 인상적이다. ‘만리포사랑노래비’에 해당되는 사진은 8장으로 워터스크린과 함께 만리포 해수욕장의 또 다른 랜드마크이다. ‘만리포 방풍림’은 6장으로 주로 일몰시간에 돋보이는 경관으로 나타나며, 일렬로 분포한 방풍림과 그 사이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늘이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다. ‘만리포 짚와이어’는 체험경관으로 3장이 있으며 다른 해변에 없는 독특한 체험으로 해변 위를 건너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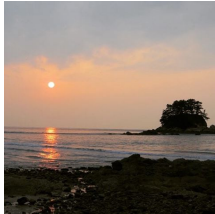
몽산포-청포대 구역에는 4개의 CP가 도출되었으며 ‘갯벌체험·몽산포 해변·몽산포 캠핑장·몽산포 솔숲길’이 있다. ‘갯벌체험’은 25장이 있으며 조개잡이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몽산포 해변’은 21장으로 넓게 펼쳐진 해변의 모습이며, 하늘·바다·갯벌이 조용한 느낌을 주

고 있다. ‘몽산포 캠핑장’은 20장으로 솔숲에 캠핑장이 있고 뒤로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해변이 존재한다. ‘몽산포 솔숲길’은 5장으로 빼곡한 소나무 숲 사이로 길이 나타나있고 나무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이 드는 모습이다.

백사장항-드르니항 구역에는 2개의 CP가 도출되었으며 ‘대하랑꽃게랑다리·백사장항’이 있다. ‘대하랑꽃게랑다리’에 해당되는 사진은 99장이 분포하였으며, 해상인도교인 다리를 주 대상으로 촬영된 사진이 많았고, 주·야간 모두 촬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백사장항’은 12장이 있으며, 정박되어있는 어선과 항구, 바다의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꽃지 구역에는 6개의 CP가 도출되었으며, ‘할미할아비바위·방포항 생각하는 의자·꽃지 해변 목책·태안해변길 안내판·풍등날리기 체험·꽃지 해변 레포츨’이 있다. ‘할미할아비바위’에 해당되는 사진은 268장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구역 중 가장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촬영되는 사진에 있어서는 할미할아비바위가 주 대상이나, 구도 및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다른 CP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점장이 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바위를 대상으로 근경과 원경이 모두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는 9장이 있으며, 바다와 벤치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따라서 벤치 자체를 주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벤치와 바다 및 모래사장 모두를 하나의 경관으로 보기도 하였다. ‘꽃지해변 목책’은 7장의 사진이 나타났으며, 수평으로 펼쳐진 해안선에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목책의 모습이 있다. ‘태안해변길 안내판’은 5장이 있으며, 태안해변길 코스임을 알려주는 안내 석판과 뒤에 원경으로 보이는 할미할아비바위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풍등날리기 체험’과 ‘꽃지해변 레포츨’은 각 5장, 4장이며 꽃지해변에서 일어나는 체험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표 4-2]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표경관(CP) 이미지



학ampo 소분점도



학ampo 해변



구레포 캠핑장



신두리 해안사구



사구 데크길



신두리 해변



신두리 해변 말뚝



억새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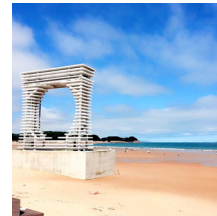
모래조각페스티벌



해변 A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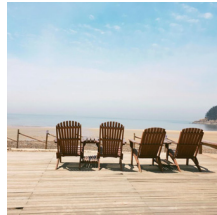
두웅습지



위터스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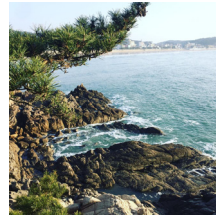
만리포 해변



천리포수목원노을쉼터



낭새섬



만리포 절벽



만리포사랑노래비



만리포 방풍림
사진자료 : 인스타그램

[표 4-2]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표경관(CP) 이미지(이어서)



만리포 썰ва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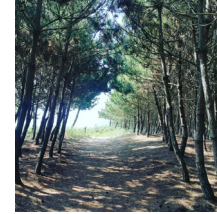
갯벌체험



몽산포 해변



몽산포 캠핑장



몽산포 숲숲길



대하랑꽃게랑다리



백사장항



할미할아비바위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



꽃지해변 목책



태안해변길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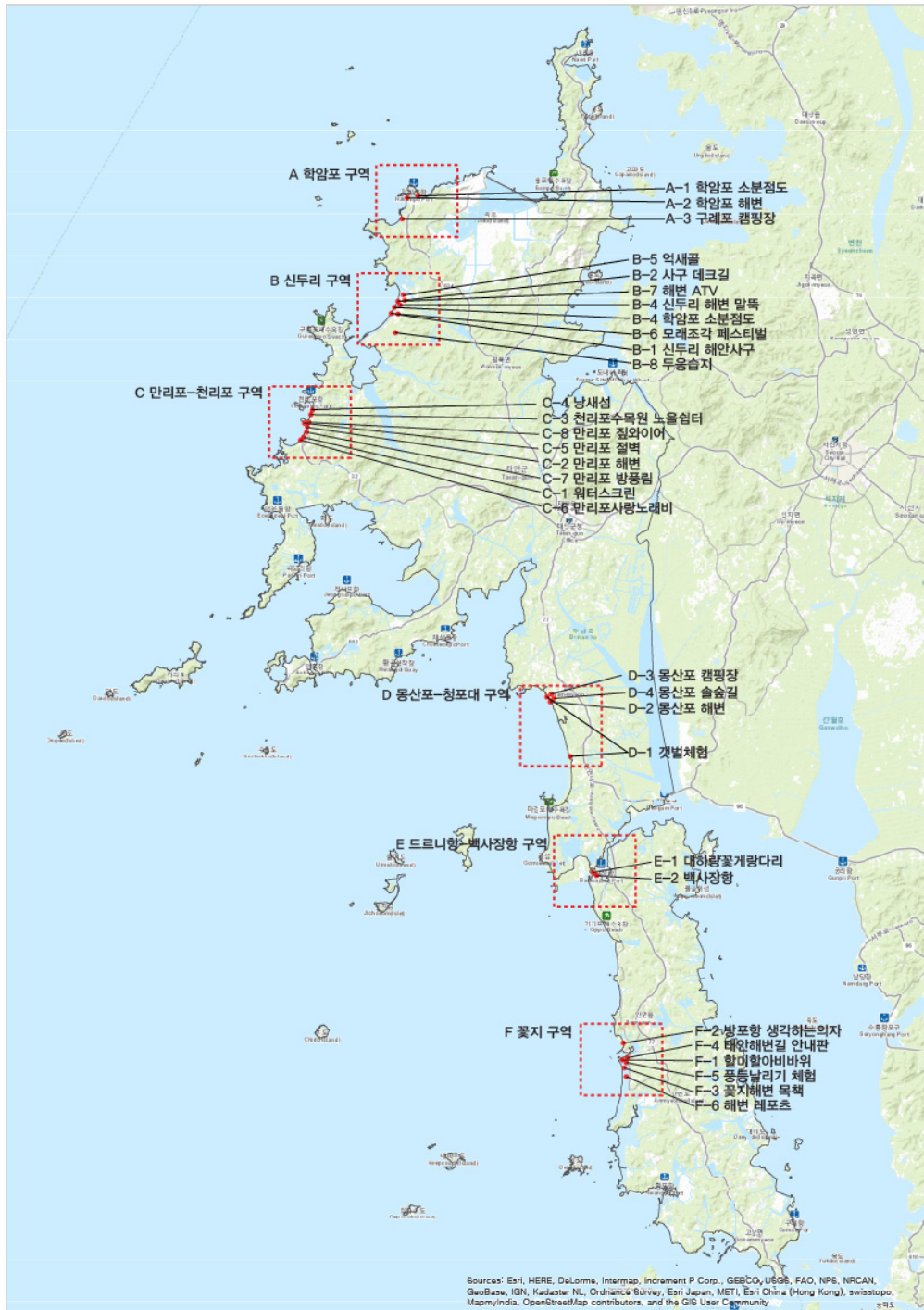


풍등날리기 체험



꽃지해변 레포츠

사진자료 : 인스타그램



[그림 4-8] 인스타그램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CP) 분포

[표 4-3] 인스타그램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표경관(CP)

위치	CP	사진수	내용
학암포 구역	학암포 소분점도	29	술섭을 주대상으로 바다·섬·모래사장·하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해안경관의 모습
	학암포 해변	14	탁 트인 학암포 해변의 잔잔함과 갯벌의 모습
	구례포 캠핑장	8	솔숲에 둘러싸인 캠핑장 모습과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경관
신두리 구역	신두리 해안사구	60	사막을 연상하게 하는 모래언덕
	사구 데크길	33	초지사이로 쪽 뺨은 데크길이 존재하며 그 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
	신두리 해변	17	순비기언덕 전망대에서 바라본 신두리해변 전경
	신두리해변 말뚝	16	해안선·모래사장 등 수평적 요소들 가운데 홀로 수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
	억새골	8	탐방로 양옆으로 억새밭이 펼쳐져 있는 모습
	모래조각 페스티발	5	해변에 다양한 모래조각 작품과 페스티발 참가자 및 구경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모습
	해변 ATV	3	신두리 해변에서 레포츠를 체험하는 모습
	두웅습지	2	주변식생으로 위요되어 있는 두웅습지 전경
천리포-만리포 구역	워터스크린	31	만리포 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서 경관의 주대상이 되어있는 모습
	만리포 해변	21	넓게 펼쳐진 해변의 모습이 파노라마로 나타나며 조용한 분위기가 표현됨
	천리포수목원 노을쉼터	20	천리포 해변 방향으로 설치된 울타리의 모양이 독특하며 데크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방해요소 없이 바로 바다를 감상
	낭새섬	19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낭새섬 전경. 물때에 따라 낭새섬으로 이어지는 길이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
	만리포 절벽	10	만리포 해변의 잔잔함과 다르게 바위에 부딪혀 생기는 파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바위틈에 존재하는 소나무의 형상도 인상적
	만리포사랑 노래비	8	워터스크린과 함께 만리포 해수욕장의 또 다른 랜드마크
	만리포 방풍림	6	주로 일몰시간에 돋보이는 경관으로 나타나며, 일렬로 있는 방풍림과 그 사이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이 보이는 것이 인상적
	만리포 쉼와이어	3	다른 해변에는 없는 독특한 체험으로 해변위를 건너가는 모습

[표 4-3] 인스타그램에서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표경관(CP) (이어서)

위치	CP	사진 수	내용
몽산포-청포대 구역	갯벌체험	25	조개잡이 체험하는 모습
	몽산포 해변	21	넓게 펼쳐진 해변의 모습이며, 하늘·바다·갯벌이 조용한 느낌
	몽산포 캠핑장	20	솔숲에 캠핑장이 있고 뒤로는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해변이 존재
	몽산포 솔숲길	5	빼곡한 소나무 숲 사이로 길이 나타나있고 나무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
백사장항-드르니항 구역	대하랑꽃게랑 다리	99	해상인도교인 다리를 주대상으로 촬영된 사진이 많았으며 주·야간 모두 촬영빈도가 높게 나타남
	백사장항	12	정박되어있는 어선과 항구, 바다의 모습
꽃지 구역	할미할아비바위	268	할미할아비바위를 주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촬영 구도나 장소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다른 CP에 비해 시점장이 넓게 존재하고 있음. 바위를 대상으로 근경·원경 모두 존재함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	9	바다와 벤치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 벤치 자체를 주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벤치와 바다, 모래사장을 하나의 경관으로 보기도 함
	꽃지해변 목책	7	수평으로 펼쳐진 해안선에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목책의 모습
	태안해변길 안내판	5	태안해변길 코스임을 알려주는 안내 석판과 그 뒤에 원경으로 보이는 할미할아비바위의 모습이 함께 나타남
	풍등날리기 체험	5	사람들이 풍등날리기 체험을 하는 모습
	꽃지해변 레포츠	4	해변과 숲길을 동시에 체험하는 ATV 모습

3절 텍스트 분석을 통한 방문객의 경관 인식 파악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함께 코멘트와 해시태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과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작성하여 업로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CP(Consensus Photograph)에 해당되는 사진과 함께 작성된 코멘트 및 해시태그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주요 경관 및 활동과 선호요인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CP에 대하여 방문객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하며, 어떤 자원과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학ampo 구역

학ampo 구역에 위치한 CP ‘학ampo 소분점도·학ampo 해변·구레포 캠핑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는 [표 4-4]와 같다. ‘학ampo 소분점도’에 해당하는 사진 29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학ampo(25번, 86.2%), 일몰(11번, 37.9%), 바다(10번, 34.5%), 풍경(7번, 24.1%), 실루엣(6번, 20.7%), 감성(4번, 13.8%), 해변·술섬·예쁜(3번, 10.3%)...’이다. 학ampo 해수욕장은 태안해변길 첫 번째 코스인 바라길의 출발지로서, 트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 경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바다·하늘·섬·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해안경관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사람이 적어 한적한 느낌과 바다를 조망했을 때 전방에 술섬 이외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전경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객들은 ‘학ampo 소분점도’ CP에 대하여 일몰 경관에서 역광으로 인해 형성되는 술섬의 실루엣과 바다에 비친 반영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ampo 해변’에 해당하는 사진 14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학ampo(14번, 100%), 바다(6번, 42.9%), 해변·글램핑(4번, 28.6%), 좋다(3번, 21.4%), 날씨· 드라이브· 풍경· 모래· 캠핑· 예쁜· 힐링· 갯벌· 하늘· 산책(2번, 14.3%)...’이다. 키워드 분석 결과에 있어 ‘학ampo 소분점

도’와의 차이점은 글램핑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 점이 있다. 이는 학ampo 해수욕장에는 글램핑장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ampo에서 글램핑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객들은 학ampo 소분점도가 위치한 해변과는 다른 공간에 대하여 바다가 넓게 펼쳐진 풍경과 갯벌에 비친 하늘로부터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 조용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마음이 편해지는 경관이 제공되어 이 공간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구레포 캠핑장’에 해당하는 사진 8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구레포·캠핑(8번, 21%), 캠핑장(3번, 8%), 바다·힐링·백패킹·아웃도어·캠퍼·자연(2번, 5%), 바닷가·모래사장·솔·좋다...(1번, 3%)’이다. 구레포 캠핑장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캠핑장 바로 옆에 바다와 모래사장이 존재하며, 캠핑장 주변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치상의 이유로 솔솔 너머로 보이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이 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표 4-4] 학암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학암포 소분점도 (29)	학암포	25	86.2%	
	일몰	11	37.9%	- 바다·하늘·섬·모래사장 장으로 이루어진 경관 - 일몰 경관에서 역광으로 인해 형성되는 솔섬의 실 루엣과 바다에 비친 반영 - 사람이 적어 한적한 느 낄과, 바다를 바라봤을 때 솔섬 이외의 것이 존재하 지 않는 전경관을 선호함 - 태안해변길 첫 번째 코 스의 출발지로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음
	바다	10	34.5%	
	풍경	7	24.1%	
	실루엣	6	20.7%	
	감성	4	13.8%	
	해변·솔섬·예쁜	3	10.3%	
	하늘·모래·힐링·행복·날씨맑은· 한적한·가슴이뽕뚫리는·주말·비· 좋다	2	6.9%	
국립공원·바라길·트레킹·그림자· 반영· 드라이브·혼자·신선놀음·텐 트·글램핑·해무·바다색·당일여행 ·해질녘·절경·파도소리·바닷물· 깨끗한·바람	1	3.4%		
학암포 해변 (14)	학암포	14	100%	- 바다가 넓게 펼쳐진 풍 경과 갯벌에 비친 하늘이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줌 - 모래가 부드러워 걸기 좋음 - 사람이 없어 조용하고 운치있는 분위기를 형성하 고 있으며, 마음이 편해지 는 경관 - 해변에 위치한 글램핑장 에서 캠핑
	바다	6	42.9%	
	해변·글램핑	4	28.6%	
	좋다	3	21.4%	
	날씨·드라이브·풍경·모래·캠핑· 예쁜·힐링·갯벌·하늘·산책	2	14.3%	
	그림·시원한·운치있는·호린·걸기 좋은·모래놀이·사람없는·추운·마 음이편한·바람·바다여행·카라반· 태안해변길·바라길·바다색·아름다 운·경치·나들이·또오고싶은·푸른 하늘·낚시·해루질·파도소리·안개	1	7.1%	
구례포 캠핑장 (8)	구례포·캠핑	8	100%	- 바닷가에 위치한 캠핑장 바로 옆에 바다와 모래사 장이 존재함 - 솔숲 너머로 보이는 해 안경관이 아름다움
	캠핑장	3	37.5%	
	바다·힐링·백패킹·아웃도어·캠핑 ·자연	2	25%	
	바닷가·바다캠핑·석강이캠핑장·모 래사장·솔·좋다·nightscape·lands cape	1	12.5%	

*키워드의 빈도는 한 사진 안에서 동일한 키워드가 중복되어 출현할 경우 한 개로 산정함

*비율(%)은 해당 사진의 수에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측정한 값임 (빈도/사진 수)

2. 신두리 구역

신두리 구역에 위치한 CP ‘신두리 해안사구·사구 데크길·신두리 해변·신두리 해변말뚝·억새골·모래조각 페스티벌·해변 ATV·두웅습지’에 대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는 [표 4-5]와 같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해당하는 사진 60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신두리(57번, 95%), 해안사구(47번, 78.3%), 사막(32번, 53.3%), 사구(13번, 21.7%), 풍경(11번, 18.3%), 한국의 사막(10번, 16.7%), 모래(8번, 13.3%), 바람·하늘(7번, 11.1%), 천연기념물·모래언덕·멋진(6번, 10%)...’으로 도출되었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곳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장소이자 실제 사막 느낌을 받게 되는 곳으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프레임에 담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진에 드러나지 않는 공간감에 아쉬워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신기하면서도 멋진 풍경에 감탄하는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 조용히 경관을 감상하기 좋으며 조용한 분위기로 인해 모래언덕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사구 데크길’에 해당하는 사진 33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사구(32번, 97%), 하늘(7번, 21.2%), 날씨·바다(6번, 18.2%), 천연기념물(5번, 15.2%), 해수욕장·사막·바람·예쁜(4번, 12.1%), 푸른·힐링·모래언덕(3번, 9.1%)...’으로 도출되었다. 이 경관에 대해서 사구 트레킹 코스이지만 넓게 펼쳐진 초원이 예쁜 풍경이며, 푸른 하늘과 초원, 햇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좋다 하였다. 또한 방문객이 모래언덕을 상상하며 신두리 해안사구를 방문했으나, 데크길 양 옆으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인한 뜻밖의 경관을 마주한 놀라움과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신두리 해변’에 해당하는 사진 17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사구(13번, 76.5%), 바다(9번, 52.9%), 신두리 해변·하늘·해변(3번, 17.6%), 아름다운·풍경·힐링·언덕·해수욕장·모래(2번, 11.8%)...’으로 도출되었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사구 언덕에 올라 바다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신두리 해변에 대해 서술하였다. 사구 바로 옆에 넓게 펼쳐진 바다

는 ‘사구-모래사장-바다’로 이어지는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이러한 경관에 대해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두리 해변말뚝’에 해당하는 사진 16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사구·바다·풍경(6번, 37.5%), 신두리해변·해수욕장(5번, 31.3%), 일몰(3번, 18.8%), 출사(2번, 12.5%)…’으로 도출되었다. 이 말뚝은 신두리해수욕장에만 존재하고 있어 인스타그램 외의 다른 소셜미디어에도 신두리해안사구에 관련된 사진으로 자주 등장한다. 해변에 말뚝이 박혀 있는 독특한 풍경으로 인하여, 이를 대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출사를 목적으로 신두리해변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새골’에 해당하는 사진 8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신두리해안사구(6번, 75%), 바다·풍경·억새(3번, 37.5%), 백패킹·하늘·바라길·트레킹·길(2번, 25%), 바람·여유로운·아름다운·절경·제주도같은…(1번, 12.5%)’으로 도출되었다. 신두리해안사구 탐방로를 따라 가다보면 억새밭이 펼쳐진 경관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람에 억새가 흔들리는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억새밭이 펼쳐져 있는 경관에서 제주도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모래조각 페스티벌’에 해당하는 사진 5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모래축제·신두리해수욕장·바다(3번, 60%), 신두리해안사구(2번, 40%)…’으로 도출되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신두리해수욕장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모래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거나 방문하는 것에 있어 개인적 견해는 살피볼 수 없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활동이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선호나 인식을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변 ATV’에 해당하는 사진 3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신두리해변(3번, 100%), ATV(2번, 66.7%), 4륜오토바이·신나는·달리는(1번, 33.3%)’이 도출되었다. 해변 ATV체험 또한 모래조각 페스티벌과 같이 신두리해변에서의 체험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신나는’ 등과 같은 단순

한 감정만 드러났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미지와 서술되고 있는 내용은 보통 이용자가 가장 만족하는 내용과 마음에 드는 특정 대상 및 공간의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웅습지’에 해당하는 사진 2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두웅습지(2번, 100%), 아무도없는·아무것도없는(1번, 50%)’가 도출되었다. 두웅습지는 신두리 해안사구의 배후습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곳을 주요 자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풀밖에 없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방문객들은 이곳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방문객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표 4-5] 신두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신두리 해안사구 (60)	신두리	57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장소 - 사막 같은 느낌 - 신기하면서 멋진 풍경 -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 아름다움 - 사람이 적어 조용히 경관을 감상하기 좋으며, 조용해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짐
	해안사구	47	78.3%	
	사막	32	53.3%	
	사구	13	21.7%	
	풍경	11	18.3%	
	한국의사막	10	16.7%	
	모래	8	13.3%	
	바람 · 하늘	7	11.7%	
	천연기념물 · 모래언덕 · 멋진	6	10%	
	한국지리 · 해수욕장 · 해변	5	8.3%	
	바다	4	6.7%	
	조용한 · 신기한 · landscape · 출사 자연 · 아름다운 · 트래킹 · 사람없는 · 작풍 · 비 · 완벽한	3	5%	
보호 · monument · 경이로움 · 표현이안 되는 · 풍화작용 · 강풍 · 외국같은 · 부 드러운모래 · 사진찍기좋은 · 역사 · 넓 은 · 산책 · 시원한 · 더운 · 탐방로 · 감 동 · 햇빛 · 생태보전지역 · 매력적 · 애 정스팻 · 색감 · 경험 · 구름 · 사구축제 · 트래킹코스 · 백패킹 · 또오고싶은 · 경치좋은 · 프레임 · 와보고싶던 · 쉽게 볼 수 없는	1	1.7%		
사구 테크길 (33)	사구	32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구 트래킹코스이지만 넓게 펼쳐진 초원이 예쁜 풍경 - 길을 따라 가면서 사구와 초원지대의 경관변화가 있어서 좋음 - 푸른 하늘과 초원, 햇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
	하늘	7	21.2%	
	날씨 · 바다	6	18.2%	
	천연기념물	5	15.2%	
	해수욕장 · 사막 · 바람 · 예쁜	4	12.1%	
	푸른 · 힐링 · 모래언덕	3	9.1%	
	또오고싶은 · 셀프웨딩촬영 · 트래킹 · 백패킹 · 해변 · 맑은 · 길	2	6.1%	
	모래사막 · 만족 · 파란 · 나무 · 좋다 · 비 · 산책 · 해무 · 더운 · 바라길 · 해변길 · 눈부신 · 초원 · 풍경 · 완벽 한 · 조화 · 햇살 · 출사 · 나들이 · 기 분좋은 · 행복한 · 운치있는	1	3%	

[표 4-5] 신두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이어서)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신두리 해변 (17)	사구	13	76.5%	- 사구 언덕에 올라 바다를 감상 - 사구 바로 옆에 넓게 펼쳐진 바다가 아름답고 신비로움 - ‘사구-모래사장-바다’의 조화
	바다	9	52.9%	
	신두리해변 · 하늘 · 해변	3	17.6%	
	아름다운 · 풍경 · 힐링 · 언덕 · 해수욕장 · 모래	2	11.8%	
	신비로운 · 자연 · 모래사장 · 사막 · 에메랄드빛 · 매년오는 · 모래축제 · 불만한 · 놀기좋은 · 괜찮은 · 바람 · 행복한 ·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 출사 · 넓은 · 멋진 · 펼쳐진 · 스와코프먼트 · 추운 · 조화로운 · 해질녘 · 예쁜	1	5.9%	
신두리 해변말뚝 (16)	사구 · 바다 · 풍경	6	37.5%	- 신두리 해안사구 사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뚝 - 독특한 풍경으로 인해, 말뚝을 대상으로 촬영된 사진이 많이 보임
	신두리해변 · 해수욕장	5	31.3%	
	일몰	3	18.8%	
	출사	2	12.5%	
	그림 · 백패킹 · 해안길 · 구름 · 하늘 · 갯벌 · landscape · 캠핑 · 다운 · 즐거운 · 조용한바다 · 고운모래 · 나무말뚝	1	6.3%	
역새골 (8)	신두리해안사구	6	75%	- 신두리 해안사구 트레킹 코스 중 역새밭이 펼쳐진 경관 - 바람에 역새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답음 - 걸기 좋은 길과 제주도 같은 느낌
	바다 · 풍경 · 역새	3	37.5%	
	백패킹 · 하늘 · 바라길 · 트레킹 · 길	2	25%	
	바람 · 여유로운 · 신두리해변 · 아름다운 · 절경 · 신나는 · 기분좋은 · 제주도같은 · 캠핑 · 모래언덕 · 걸기	1	12.5%	
모래조각 페스티벌 (5)	모래축제 · 신두리해수욕장 · 바다	3	60%	-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모래축제
	신두리해안사구	2	40%	
	사막 · 모래 · 바람의언덕	1	20%	
해변ATV (3)	신두리해변	3	100%	- ATV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신두리 해변을 달리는 체험
	ATV	2	66.7%	
	4륜오토바이 · 신나는 · 달리는	1	33.3%	
두옹습지 (2)	두옹습지	2	100%	- 두옹습지에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아무도없는 · 아무것도없는	1	50%	

3. 천리포-만리포 구역

천리포-만리포 구역에 위치한 CP ‘워터스크린·만리포 해변·천리포 수목원 노을쉼터·낭새섬·만리포 절벽·만리포사랑노래비·만리포 방풍림·만리포 짚와이어’에 대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는 [표 4-6]과 같다. ‘워터스크린’에 해당하는 사진 31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만리포(31번, 100%), 해수욕장(19번, 61.33%), 바다(9번, 29%), 힐링(4번, 12.9%), 바닷가·하늘(2번, 6.5%)...’이 도출되었다. 이 구역에서는 ‘워터스크린’ 사진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통해, 2016년에 생겨난 워터스크린이 만리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진과 함께 작성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워터스크린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기 보다는 ‘해수욕장’, ‘바다’, ‘바닷가’ 등의 만리포를 방문하여 작성한 텍스트가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만리포 해변에 방문하여 워터스크린을 랜드마크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호·비선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리포 해변’에 해당하는 사진 21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만리포(21번, 100%), 바다(12번, 57.1%), 해수욕장(11번, 52.4%), 힐링(5번, 23.8%), 오랜만(4번, 19%), 여유로운·풍경·날씨(2번, 9.5%)...’이 도출되었다. 방문객들은 만리포의 이름처럼 실제 다른 해변보다 넓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넓게 펼쳐진 해변이 여유로운 느낌이며 걸기 좋은 곳이라는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변이 번잡하거나 시끄러움이 없어 가족끼리 바다를 감상하며 휴양하기에 적합한 해수욕장임을 밝혔다.

‘천리포 수목원 노을쉼터’에 해당하는 사진 20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천리포수목원(18번, 90%), 바다(12번, 60%), 만리포(3번, 15%), 좋다·날씨좋은(2번, 10%)...’이 도출되었다. 천리포수목원은 만리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만리포 방문객이 추가적으로 방문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수목원 내에서도 노을쉼터는 수목원을 걸다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게공간으로, 방문객이 쉬며 걸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선호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탁 트인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

져 있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낭새섬’에 해당하는 사진 19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천리포수목원(17번, 89.5%), 천리포해수욕장·낭새섬·바다(4번, 21.1%), 달력배경·힐링·풍경·뻥뚫리는(2번, 10.5%)…’이 도출되었다. 사진과 함께 작성된 글을 살펴보았을 때 수목원을 걷다가 전망대에서 마주하는 경관에 대하여 방문객들의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산책하다 마주한 바다에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바다에 있는 섬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풍경이라는 서술을 하고 있다.

‘만리포 절벽’에 해당하는 사진 10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만리포(10번, 100%), 바다(5번, 50%), 풍경(3번, 30%), 감탄·힘든·해변옆·동해같은·파도·절벽·산책로…(1번, 10%)’이 도출되었다. ‘만리포 절벽’은 만리포 해변 끝에 위치하고 있으나 만리포와 다른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절벽과 파도가 동해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잔잔하고 넓게 펼쳐진 만리포 해변 옆에 색다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점에 감탄하게 되었음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만리포사랑노래비’에 해당하는 사진 8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만리포(5번, 62.5%), 해수욕장(4번, 50%), 만리포사랑노래비·바다(3번, 37.5%), 맑은·힐링·다시오고싶은(1번, 12.5%)’로 도출되었다.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만리포사랑노래비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만리포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글이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리포사랑노래비는 워터스크린과 함께 만리포 해변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리포 방풍림’에 해당하는 사진 6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만리포(6번, 100%), 석양(4번, 66.7%), 바다·하늘(2번, 33.3%), 멋있는·힐링·좋다·구름·예쁜·운치있는·풍경(1번, 16.7%)’이 도출되었다. 방문객은 이 경관에 대하여 석양이 멋있고 하늘과 바다가 운치있는 풍경이라 서술하고 있다. 또한 만리포 방풍림은 ‘석양’이 장소를 나타내는 키워드 ‘만리포’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간보다는 일몰시간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리포 갯와이어’에 해당하는 사진 3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만리포(3번, 100%), 바다·바다 위를 날다(2번, 66.7%), 갯와이어(1번, 33.3%)’가 도출되었다. ‘만리포 갯와이어’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중 만리포에만 존재하는 갯와이어 체험활동으로, 체험 중에 느꼈던 감정을 서술하였다.

[표 4-6] 천리포-만리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위터 스크린 (31)	만리포	31	100%	- 태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만리포임을 나타냄 - 그러나 위터스크린을 대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음
	해수욕장	19	61.3%	
	바다	9	29%	
	힐링	4	12.9%	
	바닷가·하늘	2	6.5%	
	예쁜·나들이·디운·적양·해변·푸르다·탁트인·카트·등대·천리포·바라보기·듣기좋은·파도소리·또오는	1	3.2%	
만리포 해변 (21)	만리포	21	100%	- 넓게 펼쳐진 해변이 여유로운 느낌이며 걷기 좋음 - 번잡하거나 시끄러움 없고 가족끼리 바다를 보며 휴양하기에 적합한 해수욕장임
	바다	12	57.1%	
	해수욕장	11	52.4%	
	힐링	5	23.8%	
	오랜만	4	19%	
	여유로운·풍경·날씨	2	9.5%	
	넓은·바람·파노라마·모래사장·조용한·휴양·또오고싶은·푸른빛·파도·물놀이·바닷가·조개잡이·사람많은·기가막히는·맑은·걷기·뷰·자연	1	4.8%	
천리포 수목원 노을쉼터 (20)	천리포수목원	18	90%	- 쉬며 거닐었던 곳 - 탁 트인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
	바다	12	60%	
	만리포	3	15%	
	좋다·날씨좋은	2	10%	
	바다구경·파도소리·나들이·쉬며 걷기·가슴이뻥·탁트인·멋진·재밌는·예쁜·바람의언덕·사랑의쉼터	1	5%	
낭새섬 (19)	천리포수목원	17	89.5%	- 바다에 있는 낭새섬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풍경 - 산책하다 마주한 바다에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음
	천리포해수욕장·낭새섬·바다	4	21.1%	
	달력배경·힐링·풍경·뻥뚫리는	2	10.5%	
	바라보기·바닷가·깨끗한·바닷길·산과바다·바다가보이는·산책·파도·해변·날씨	1	5.3%	

[표 4-6] 인스타그램에 작성된 천리포-만리포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이어서)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만리포 절벽 (10)	만리포	10	100%	- 돌아 들어가기에 힘들었지만 해변 옆에 있는 색다른 풍경에 감탄하게 되었음 - 절벽과 파도 때문에 동해같은 느낌도 들었음
	바다	5	50%	
	풍경	3	30%	
	해변 · 감탄 · 힘든 · 해변옆 · 동해같은 · 파도 · 절벽 · 낚시 · 바다구경 · 힐링 · 해질녘 · 오랜만 · 산책로 · 다리 · 맑은날 · 푸르다	1	10%	
만리포사 랑노래비 (8)	만리포	5	62.5%	- 만리포사랑노래비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음
	해수욕장	4	50%	
	만리포사랑노래비 · 바다	3	37.5%	
	맑은 · 힐링 · 다시오고싶은	1	12.5%	
만리포 방풍림 (6)	만리포	6	100%	- 석양이 멋있는 바다 - 하늘과 바다가 운치있는 풍경
	석양	4	66.7%	
	바다 · 하늘	2	33.3%	
	멋있는 · 힐링 · 좋다 · 예쁜 · 구름 · 운치있는 · 풍경	1	16.7%	
만리포 짚와이어 (3)	만리포	3	100%	- 바다 위를 나는 느낌 - 짚와이어 체험
	바다 · 바다위를날다	2	66.7%	
	짚와이어	1	33.3%	

4. 몽산포-청포대 구역

몽산포-청포대 구역에 위치한 CP ‘갯벌체험·몽산포 해변·몽산포 캠핑장·몽산포 솔숲길’에 대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는 [표 4-7]과 같다. ‘갯벌체험’에 해당하는 사진 25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몽산포(14번, 56%), 조개잡이(11번, 44%), 갯벌(9번, 36%), 맛조개·조개(8번, 32%), 갯벌체험(6번, 24%), 청포대(5번, 20%), 바다(4번, 16%), 별주부마을(3번, 12%), 바닷가·체험(2번, 8%)…’으로 도출되었다. 다른 구역에도 ‘갯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지만 주요 키워드와 출현빈도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이 구역이 방문객에게 갯벌체험의 주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갯벌체험이 일어나는 장소는 몽산포와 청포대 두 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몽산포가 대표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갯벌에서 조개잡이 체험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는 글이 많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체험 자체가 즐겁고 신나는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몽산포 해변’에 해당하는 사진 21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몽산포(14, 66.7%), 바다(11번, 52.4%), 해수욕장(9번, 42.9%), 힐링(5번, 23.8%), 캠핑장·좋다(4번, 19%), 다시온(3번, 14.3%), 해변·조개캐기(2번, 9.5%)…’으로 도출되었다. 몽산포 해변은 ‘다시 온’이라는 키워드가 종종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재방문객이 많은 해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변 바로 옆에 몽산포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어 캠핑장 이용객들이 해변의 경관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탁 트인 바다와 갯벌, 석양의 조화가 서해 나름의 매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몽산포 해변은 앞서 도출된 ‘갯벌체험’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하므로 ‘조개캐기, 해루질 등’의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몽산포 캠핑장’에 해당하는 사진 20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몽산포캠핑장(18번, 90%), 캠핑(15번, 75%), 몽산포해수욕장(4번, 20%), 힐링(3번, 15%), 야경…바다앞·전망·파도소리·바다냄새·재미있는·나들이(1번, 5%)’가 도출되었다. 몽산포 캠핑장은 앞이 바다전망이고 파

도소리와 바다냄새가 나는 곳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지고 힐링이 되는 공간이라고 서술되고 있다.

‘몽산포 솔숲길’에 해당하는 사진 5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몽산포(5번, 100%), 소나무숲길(2번, 40%), 향긋한·소나무향·길·숲·바다·둘레길·아름다운·캠핑장...(1번, 20%)’이 도출되었다. 몽산포 캠핑장에서 시작되는 이 숲길은 바다와 숲이 동시에 보이기도 하며 소나무향이 가득한 곳으로, 또 걷고 싶은 길이라고 서술되고 있다. 방문객에게 ‘몽산포 둘레길’이라 불리기도 하며 숲길 자체로 아름다워 휴양지로서 우수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표 4-7] 몽산포-청포대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갯벌체험 (25)	몽산포	14	56%	- 갯벌에서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하는 모습 - 체험 자체가 즐겁고 신나는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음
	조개잡이	11	44%	
	갯벌	9	36%	
	맛조개·조개	8	32%	
	갯벌체험	6	24%	
	청포대	5	20%	
	바다	4	16%	
	별주부마을	3	12%	
	바닷가·체험	2	8%	
	바람·바다캠핑·몽산포캠핑장·좋다·날씨·모래놀이·나들이·신나는	1	4%	
몽산포 해변 (21)	몽산포	14	66.7%	-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던 몽산포 해수욕장을 다시 찾음 - 서해 나름의 매력이 있음 - ‘바다는 역시 좋다’ 라는 짧은 문장이 많음
	바다	11	52.4%	
	해수욕장	9	42.9%	
	힐링	5	23.8%	
	캠핑장·좋다	4	19%	
	다시온	3	14.3%	
	해변·조개캐기	2	9.5%	
	하늘·석양·야경·노을·갯벌·날씨·해루질·매력적인·백패킹·탁트인·울창한·나무·행복·사람없는	1	4.8%	
몽산포 캠핑장 (20)	몽산포캠핑장	18	90%	- 탁 트인 바다와 울창한 나무 사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함 - 캠핑장 앞이 바다전망이 고 파도소리와 바다냄새가 나는 곳
	캠핑	15	75%	
	몽산포해수욕장	4	20%	
	힐링	3	15%	
	야경·바다앞·전망·파도소리·바다냄새·재미있는·나들이	1	5%	
몽산포 솔숲길 (5)	몽산포	5	100%	-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가득해 또 걷고 싶은 길 - 몽산포 들레길은 숲길이 아름다워서 휴양지로서 좋음
	소나무숲길	2	40%	
	향긋한·소나무향·길·숲·바다·들레길·아름다운·휴양지·푸른·소나무·숲길·캠핑장·행복한	1	20%	

5.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에 위치한 CP ‘대하랑꽃게랑다리·백사장항’에 대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는 [표 4-8]과 같다. ‘대하랑꽃게랑다리’에 해당하는 사진 99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대하랑꽃게랑다리(61번, 61.6%), 백사장항(53번, 53.5%), 드르니항(41번, 41.4%), 대하축제(24번, 24.2%), 바다(20번, 20.2%), 야경·풍경(15번, 15.2%), 해상인도교(9번, 9.1%), 예쁜(8번, 8.1%), 노을·일몰·힐링(6번, 6.1%), 날씨…’이 도출되었다. 대하랑꽃게랑다리는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다리로 태안의 명물이라 불리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야경이 멋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야경, 일몰, 불빛, 밤바다’ 등의 키워드와 ‘해가 지고 나서 보는 다리, 멋진 불빛으로 매일 밤 수놓는 풍경’ 등의 문구를 통해 실제로 야경사진 촬영지로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다리의 야경을 선호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백사장항’에 해당되는 사진 12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백사장항(8번, 66.7%), 바다(6번, 50%), 드르니항(5번, 41.7%), 힐링·대하축제(3번, 25%), 나들이·풍경·하늘(16.7%)…’이 도출되었다. 백사장항은 대하축제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하랑꽃게랑다리를 조망하면서 함께 인지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사장항 방문객들은 해변과 항구가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띄고 있어, 나들이를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조용하게 풍경을 감상하고 갈 수 있는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대하랑 꽃게랑 다리 (99)	대하랑꽃게랑다리	61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의 명물 - 태안의 야경사진 촬영지. 항구의 배와 다리가 일몰사 진을 완성시킴 - 해가 지고 나서 보는 다 리 - 가슴이 먹먹해지는 다리 의 일몰 풍경 - 숨통이 트이는 야경. 멋진 불빛으로 매일 밤 수놓는 풍경 - 야경이 멋진 곳으로 알려 져 있는 다리 - 대하축제로 방문한 김에 보게 되는 바다
	백사장항	53	53.5%	
	드르니항	41	41.4%	
	대하축제	24	24.2%	
	바다	20	20.2%	
	야경·풍경	15	15.2%	
	해상인도교	9	9.1%	
	예쁜	8	8.1%	
	노을·일몰·힐링	6	6.1%	
	날씨	5	5.1%	
	멋진·하늘·바람	4	4%	
	캠핑·항구	3	3%	
구름·나들이·백패킹·분위기있는 ·불빛·이어주는	2	2%		
가슴먹먹해지는·감동·감상·다리 위· 무지개·바다냄새·바다전망·바닷 가· 밤바다·별빛축제·전망·숨통이트 이는·스릴있는·일몰사진촬영지· 자연·전망대·조망점·태안해변길 ·트래킹·푸른	1	1%		
백사장항 (12)	백사장항	8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과 항구가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바다	6	50%	
	드르니항	5	41.7%	
	힐링·대하축제	3	25%	
	나들이·풍경·하늘	2	16.7%	
	바닷가·여유로운·조용한·좋은· 다시온·다리위·낚시·해변·항구 ·푸른·구름	1	8.3%	

6. 꽃지 구역

꽃지 구역에 위치한 CP ‘할미할아비바위 ·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 · 꽃지 해변 목책 · 태안해변길 안내판 · 풍등날리기 체험 · 꽃지해변 레포츠’에 대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는 [표 4-9]와 같다. ‘할미할아비바위’에 해당하는 사진 268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꽃지해수욕장(258번, 96.3%), 바다(94번, 35.1%), 일몰(74, 27.6%), 할미할아비바위(71번, 26.5%), 풍경(44번, 16.4%), 힐링(26번, 9.7%), 바람(17번, 6.3%), 해변(16번, 6%), 하늘(15번, 5.6%), 밀물썰물 · 예쁜(12번, 4.5%), 멋진 · 섬(10번, 3.7%), 갯벌 · 좋은(9번, 3.4%)···’이 도출되었다. 할미할아비바위는 ‘꽃지에 가면 만나는 풍경’이라고 불리는 만큼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꽃지해변에서도 대표경관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주로 일몰 감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미할아비바위를 주경관요소로 인지하고 두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하는 것이 이 공간에서의 주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할미할아비바위’도 신두리 구역의 ‘신두리 해안사구’와 같이 사진에 담기지 않는 공간감과 분위기에 대해 서술된 의견이 많았으며, 일몰경관에서 느껴지는 몽환적인 분위기와 따듯한 느낌을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섬까지의 물길의 생기거나 사라짐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를 신기해하기도 하며, 이곳에서는 출사, 물놀이, 해루질, 걷기, 조망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에 해당하는 사진 8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방포해변(8번, 100%), 바다 · 힐링 · 생각하는의자(2번, 25%), 풍경 · 파도 · 경치 · 해루질 · 조용한(1번, 12.5%)’이 도출되었다. 방포해변에 있는 텅 빈 의자가 인상적이라고 서술하며, 이 의자를 ‘생각하는 의자’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방포해변이 조용히 바다를 감상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사진과 함께 작성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방문객은 의자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의자와 바다가 함께 있는 장면 자체를 경관으로 인지하고 조용한

풍경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꽃지해변 목책’에 해당하는 사진 7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꽃지해수욕장(7번, 100%), 오랜만·길·바람·썰물·해루질·힐링·포토존·바다(1번, 14.3%)’가 도출되었다. 방문객들은 목책이 설치된 목적성보다는 경관에 대한 시각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지하고 있다. ‘바다로가는길’과 같은 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바다와 접하고 있는 목책부분을 묘사하거나 ‘꽃지해변의 새로운 포토존’이라는 표현으로 목책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태안해변길 안내판’에 해당하는 사진 5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꽃지해수욕장(5번, 100%), 바다(2번, 40%), 노을길·백사장항·백패킹·섬·예쁜·바다구경…(1번, 20%)’이 도출되었다. 꽃지해수욕장에 위치한 태안해변길 안내판은 태안해변길 코스 중 노을길의 종점을 의미하고 있어, 백패킹을 하는 방문객에게 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내판 뒤로 할미할아비바위가 보여 조망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풍등날리기 체험’에 해당하는 사진 5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꽃지해수욕장(5번, 100%), 풍등(4번, 80%), 풍경·소원빌기(3번, 60%)’이 도출되었으며, ‘꽃지해변 레포츠’에 해당하는 사진 4장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ATV(4번, 100%), 꽃지해수욕장(3번, 75%), 바다(2번, 50%), 레포츠·재밌는·힐링(1번, 25%)’이 언급되었다. 위의 두 CP는 꽃지해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점이 서술되어 있으나 ‘행사에 참석’ 또는 ‘재미있다’ 등의 단순 기술에 국한되어 있다.

[표 4-9] 꽃지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할미 할아비 바위 (268)	꽃지해수욕장	258	96.3%	
	바다	94	35.1%	
	일몰	74	27.6%	
	할미할아비바위	71	26.5%	
	풍경	44	16.4%	
	힐링	26	9.7%	
	바람	17	6.3%	
	해변	16	6%	
	하늘	15	5.6%	- 꽃지에 가면 만나는 풍경
	밀물썰물 · 예쁜	12	4.5%	- 일몰 감상을 위해 방문
	멋진 · 섬	10	3.7%	- 할미할아비바위를 주경관 요소로, 바위 사이로 떨어지 는 낙조 감상
	갯벌 · 좋은	9	3.4%	- 일몰만 보고 돌아가기에 는 가까운 곳. 실제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곳
	구름 · 날씨 · 방포항 · 해질녘	8	3%	- 일몰경관에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좋음
	바닷바람 · 실루엣	7	2.6%	- 시간대별로 받는 느낌이 달라지는 곳이라 신기하기 도 함
	백사장 · 시원한 · 추운	6	2.2%	- 밀물썰물에 따라 길이 생 기면서 형성되는 다른 경관
	바다구경 · 야경 · 출사	5	1.9%	
물놀이 · 바닷가 · 행복한	4	1.5%		
갯벌체험 · 걷기 · 관광 · 낚시 · 명소 · 바위 · 바닷길 · 유채꽃밭 · 자갈밭 · 조개잡이 · 캠핑 · 파도 · 해안가	3	1.1%		
감동적인 · 경치 · 감성 · 그림같은 · 나들이 · 낭만적인 · 맑은 · 모래 · 바 닷물 · 사람많은 · 사진찍기좋은곳 · 산책 · 아름다운 · 안개 · 여유로운 · 유채꽃 · 푸른 · 해안도로	2	0.7%		
관광지 · 길 · 꽃구경 · 꽃다리 · 꽃지 해안공원 · 따뜻한느낌 · 몽환적인 · 무인도 · 물길 · 바다냄새 · 신기한 · 안면도자연휴양림 · 일출 · 잔잔한 · 전망 · 적송 · 조망(점) · 캠핑장 · 트래 킹 · 파란하늘 · 표현이안되는 · 한산 한 · 해넘이 · 해루질 · 해무 · 화창한 · 휴양	1	0.4%		

[표 4-9] 인스타그램에 작성된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CP의 주요 키워드 및 주요 경관(이어서)

CP (사진 수)	주요 키워드	빈도	%	내용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 (8)	방포해변	8	100%	- 바다에 있는 텅 빈 의자가 인상적이고,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히 바다를 감상하기 좋음
	바다 · 힐링 · 생각하는의자	2	25%	
	풍경 · 파도 · 경치 · 해루질 · 조용한	1	12.5%	
꽃지해변 목적 (7)	꽃지해수욕장	7	100%	- 바다로 가는 길
	오랜만 · 길 · 바람 · 썰물 · 해루질 · 힐링 · 포토존 · 바다	1	14.3%	- 꽃지해변의 새로운 포토존
태안해변 길 안내판 (5)	꽃지해수욕장	5	100%	- 태안해변길 코스인 노을길 완료를 의미
	바다	2	40%	- 안내판 너머 원경으로 보이는 활미할아비바위를 선호함
	노을길 · 백사장항 · 백패킹 · 섬 · 예쁜 · 멋진 · 깨끗한 · 바다구경 · 사람 많은 · 해님이	1	20%	
풍등 날리기 체험 (5)	꽃지해수욕장	5	100%	- 연말과 새해를 기념하여 진행되는 풍등날리기 행사
	풍등	4	80%	
	풍경 · 소원빌기	3	60%	
	일몰	2	40%	
	풍등날리기	1	20%	
꽃지해변 레포츠 (4)	ATV	4	100%	- 꽃지해수욕장에서 레포츠 ATV. 재미있고 힐링되는 체험
	꽃지해수욕장	3	75%	
	바다	2	50%	
	레포츠 · 재밌는 · 힐링	1	25%	

4절 주요 구역별 경관특성 분석


앞서 사진과 텍스트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 경관을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 4가지의 경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경관유형은 일반적인 유형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의 물리적·시각적인 경관유형보다는 사람들이 공간에서 경관을 어떻게 향유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활동에 기반한 유형이다.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체험을 하거나 경험한 뒤 작성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또한 활동 기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주요 정보는 사진과 텍스트이기 때문에 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표 4-10]과 같다. 경관조망은 시점의 기준이 되는 대상과 그 주변을 둘러싼 풍경을 함께 인지한 경우이고, 조망하는 곳이 동일한 지점이 아니더라도 같은 시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이미지는 특정대상을 한 시점으로 보는 것보다 경관이 존재하는 공간의 이미지 또는 분위기 자체가 묘사된 것으로 경관조망 보다는 동적으로 공간에서 경관을 체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예로 들면, ‘학암포 소분점도’는 경관조망에, ‘억새골’은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경관이다. ‘학암포 소분점도’의 경우에는 숲섬이 조망대상의 키워드로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억새골’의 경우 대상보다는 경관이 보여지는 공간과 이러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묘사가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트레킹’ 같은 동적인 활동이 드러나는 키워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랜드마크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그 자체를 경관요소로 인지하여 바라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체험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체험 및 활동을 경관의 한 장면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공간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경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CP 사진과 키워드 분석을 통해 도출한 4가지의 경관유형을 주요 구역 6곳에 적용하여 유형분류를 실시하였으며, 각 경관이

형성되는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10] 경관유형 분류 틀

구분	내용	관련 CP 및 키워드 예시
경관조망	시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둘러싼 풍경이 함께 인지된 경우. 같은 시점을 형성하고 있음	 <p>‘학암포 소분점도’ -대상 : 솔섬 -주변 경관 묘사 : 일몰, 바다, 해변, 하늘, 모래</p>
공간 이미지	특정대상을 한 시점으로 보는 것보다 경관이 존재하는 공간의 이미지(분위기) 자체가 묘사됨. 경관조망 보다 동적으로 공간을 체험하고 경관을 체험하는 것	 <p>‘억새골’ -공간 : 신두리해안사구 -경관 요소, 묘사, 활동 : 억새, 하늘, 길, 제주도갈은, 트레킹</p>
랜드마크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그 자체를 경관요소로 인지한 것. 또한 대상이 중심으로 공간의 대표성을 띄는 것	 <p>‘대하랑꽃게랑다리’ -대상 : 대하랑꽃게랑다리, 해상인도교</p>
체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체험 및 활동을 경관의 한 장면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공간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경관	 <p>‘모래조각 페스티벌’ -장소 : 신두리해수욕장 -활동 : 모래축제 참가 및 감상</p>

*유형에 해당되는 예시(CP와 키워드)는 4장 2절, 3절에서 분석 내용 참고하여 작성

사진자료 : 인스타그램

1. 학ampo 구역

학ampo 구역에 해당되는 CP는 3개이며, 이는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경관조망에 해당되는 CP는 ‘학ampo 소분점도·학ampo 해변’으로 2개,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CP는 ‘구례포 캠핑장’으로 1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ampo 구역은 네 가지의 경관유형 중 경관조망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이다.

경관조망에 해당되는 ‘학ampo 소분점도’는 바다와 모래사장, 갯벌이 수평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바다 한 가운데에 솔섬 하나만 솟아 있는 경관이다. 방문객들은 섬을 주경관요소로 인지하여 조망하고 있으며, 경관을 감상한다. 또한 일몰시간에는 역광으로 인해 솔섬의 형태가 실루엣으로 투영되어 보이거나 바다에 반영된 모습이 방문객이 선호하는 ‘학ampo 소분점도’의 경관이기도 하다. ‘학ampo 해변’은 우측에 위치한 섬을 시점 대상으로 학ampo 해변을 조망하며, 넓게 펼쳐진 학ampo 바다 자체를 경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잔한 바다와 넓은 모래사장, 갯벌이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학암포 소분점도

학암포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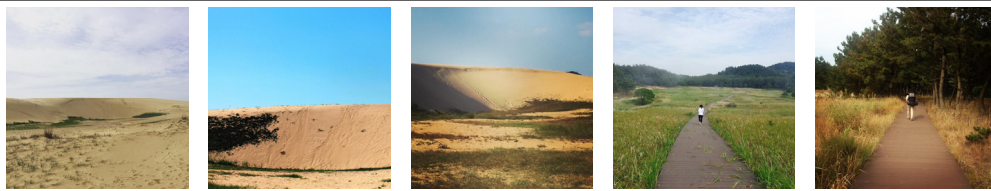
[그림 4-9] 학암포 구역 CP 경관 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사진 자료 : 인스타그램

2. 신두리 구역

신두리 구역에 해당되는 CP는 8개이며, 이는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체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경관조망에 해당되는 CP는 ‘신두리 해변, 두웅습지’ 로 2개,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CP는 ‘신두리 해안사구·사구 데크길·억새골·신두리 해변 말뚝’ 으로 4개, 체험에 해당되는 CP는 ‘모래조각 페스티벌, 해변 ATV’ 로 2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두리 구역은 네 가지의 경관유형 중 공간이미지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이다.

‘신두리 해안사구·사구 데크길·억새골’ 은 신두리 해안사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탐방로를 따라 시점장이 변화하면서 형성되는 CP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는 모래언덕이 있는 공간에서 형성되는 경관이며, 사구 그 자체의 모습이다. 사구와 하늘만 있어 광활한 공간에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사구 데크길’ 은 데크길과 양옆으로 펼쳐진 초지, 원경으로 보이는 곶솔림이 있어, 사구와 같은 공간임에도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달라져 다른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억새골’ 또한 ‘사구 데크길’ 과 동일한 탐방로이지만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전망할 수 있고 탐방로 옆에 억새밭이 존재하여 다른 CP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두리 해변 말뚝’ 은 넓게 보이는 백사장과 해안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고 모래사장에 나무 말뚝이 수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관이다. 다른 해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말뚝 자체가 주경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모래사장과 바다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는 느낌을 제공한다.



신두리 해안사구

사구 데크길



신두리 해변 말뚝

억새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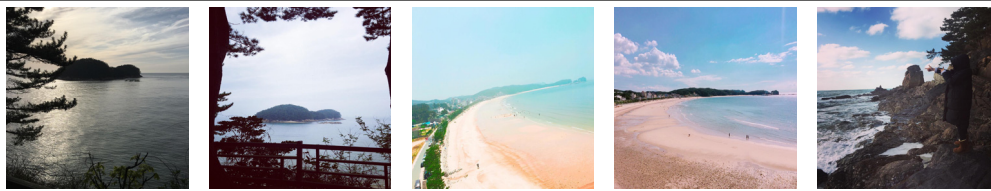
[그림 4-10] 신두리 구역 CP 경관 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사진 자료 : 인스타그램

3. 천리포-만리포 구역

천리포-만리포 구역에 해당되는 CP는 8개이며, 이는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경관조망에 해당되는 CP는 ‘낭새섬, 만리포 절벽, 만리포 해변’ 로 3개,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CP는 ‘천리포 수목원 노을쉼터·만리포 방풍림’ 으로 2개,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CP는 ‘워터스크린, 만리포사랑노래비’ 로 2개, 체험에 해당되는 CP는 ‘만리포 짚와이어’ 로 1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두리 구역은 네 가지의 경관유형 중 경관조망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이다.

‘낭새섬’은 천리포 수목원의 해안전망대에서 조망하게 되는 경관이다. 방문객들은 천리포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걸다가 전망대에서 탁 트인 전망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시점과 공간의 변화를 느낀다. 또한 천리포 해변 중간에 위치한 낭새섬은 섬 이외의 다른 경관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섬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특징이 있다. ‘만리포 해변’의 경우 태안의 다른 해안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모래사장과 갯벌, 바다가 경관형성에 주요소가 된다. 이 CP가 다른 해변 경관과 다른 점은 모래사장이 곡선을 그리며 펼쳐진 경관을 만리포의 대표경관으로 인지되고 있는 점이다. ‘만리포 절벽’은 절벽과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로 인해 형성되는 경관이며, 동일한 공간의 CP인 ‘만리포 해변’과 반대로 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낭세섬

만리포 해변

만리포 절벽

[그림 4-11] 천리포-만리포 구역 CP 경관 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사진 자료 : 인스타그램

4. 몽산포-청포대 구역

몽산포-청포대 구역에 해당되는 CP는 4개이며, 이는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활동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경관조망에 해당되는 CP는 ‘몽산포 해변’으로 1개,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CP는 ‘몽산포 캠핑장, 몽산포 숲숲길’로 2개, 체험에 해당되는 CP는 ‘갯벌체험’으로 1개가 존재한다.

CP가 해당되는 경관유형의 개수로만 구역의 대표적 성격을 규정한다면 몽산포-청포대 구역은 네 가지의 경관유형 중 경관조망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이다. 그러나 이 구역에 존재하는 ‘갯벌체험’은 다른 구역의 활동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CP사진의 수가 월등히 많다. 따라서 몽산포-청포대 구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6개 주요 구역 중 체험 유형의 성격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역이라 할 수 있다.



갯벌체험

[그림 4-12] 몽산포-청포대 구역 CP 경관 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사진 자료 : 인스타그램

5.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에 해당되는 CP는 2개이며, 이는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CP는 ‘백사장항’ 이고,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CP는 ‘대하랑꽃게랑다리’ 이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대하랑꽃게랑다리’ 와 관련된 CP사진은 99개이고 ‘백사장항’ 과 관련된 사진은 12장으로,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은 두 가지의 경관유형 중 대상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이라 할 수 있다.

‘대하랑꽃게랑다리’ 는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해상인도교이자 랜드마크로서 다리를 대상으로 조망하는 시점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리의 형태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 백사장항과 드르니항 두 항구에서 촬영된 사진이 동일한 특징이 있다. 또한 이 CP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간경관, 일몰경관, 야경 세 가지 경관으로 구분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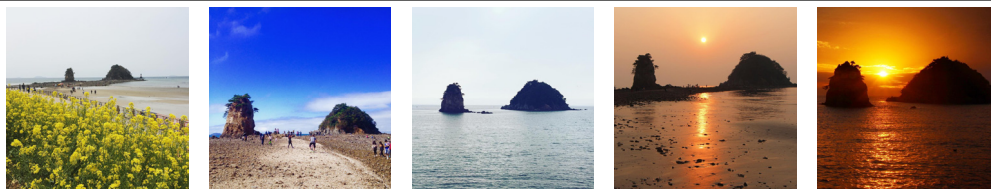
대하랑꽃게랑다리

[그림 4-13]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CP 경관 유형 구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사진 자료 : 인스타그램

6. 꽃지 구역

꽃지 구역에 해당되는 CP는 6개이며, 이는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경관조망에 해당되는 CP는 ‘할미할아버바위’로 1개, 공간이미지에 해당되는 CP는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로 1개,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CP는 ‘태안해변길 안내관, 꽃지해변 목책’으로 2개, 체험에 해당되는 CP는 ‘풍등날리기 체험, 꽃지해변 레포츠’로 2개가 존재한다. ‘할미할아버바위’는 전체 CP사진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태안해안에 대표적인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꽃지 구역은 네 가지의 경관유형 중 경관조망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이라 할 수 있다.

‘할미할아버바위’는 꽃지해수욕장과 방포항, 꽃지 꽃다리 등 다양한 위치에서 경관조망이 이루어지며 넓은 시점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장소에서 경관을 감상하기 때문에 사진의 구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와 연출되는 경관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미할아버바위로 연결되는 물길이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근경·원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주간경관·일몰경관에 따라 형성되는 경관의 분위기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할미할아비바위

[그림 4-14] 꽃지 구역 CP 경관 유형 분석도 및 대표 유형 이미지

사진 자료 : 인스타그램

5절 분석의 종합

1. 기존에 알려진 경관자원과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의 비교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중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관·관리주체 및 매체에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경관자원과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경관자원은 시각 경관 및 생태·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하여 강조되고 있지만,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관뿐만 아니라 활동의 공간, 독특한 요소, 체험을 하는 모습 그 자체까지 하나의 경관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생태·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기존 경관자원과 방문객이 인식한 경관자원 비교

구역	기존에 알려진 주요 자원	방문객이 인식한 경관 자원
학암포 구역	학암포 자연관찰로, 분점도, 구례포	학암포 소분점도, 학암포 해변, 구례포 캠핑장
신두리 구역	신두리사구, 두웅습지	신두리사구(신두리 해안사구, 사구 테크길, 역새골), 신두리 해변, 신두리 해변말뚝, 모래조각 페스티벌, 해변ATV, 두웅습지
천리포-만리포 구역	천리포 수목원, 천리포 해변, 만리포, 모항항	천리포수목원(천리포수목원 노을쉼터, 낭새섬), 워터스크린, 만리포 해변, 만리포 사랑노래비, 만리포 절벽, 만리포 방풍림, 만리포 쉼와이어
몽산포-청포대 구역	몽산포 자연관찰로, 몽산포 모래포집기, 습지, 별주부마을, 별주부전망대	몽산포 캠핑장, 몽산포 솔숲길, 몽산포 해변, 갯벌체험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백사장항	백사장항, 대하랑꽃계랑다리
꽃지 구역	방포 모감주나무군락지, 꽃지꽃다리, 할미할아비 바위	방포항 생각하는 의자, 꽃지해변 목책, 꽃지해변목책, 태안해변길 안내판, 풍등 날리기체험, 꽃지해변 레포츠

*기존 경관자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공한 태안해변길의 주요 자원을 참고함

*방문객이 인식한 경관자원은 CP명으로 작성

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 유형 분포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경관은 인간의 체험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경관유형과 다르게 활동을 기반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은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이라는 4가지의 활동으로 형성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방문객이 인식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경관을 활동을 기반으로 도출한 유형에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표 4-12]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각 구역별 대표성을 띄는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그림 4-15]와 같다.

경관조망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은 ‘학암포 구역’, ‘천리포-만리포 구역’, ‘꽃지 구역’이 있으며, 공간이미지 유형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은 ‘신두리 구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의 성격이 강한 구역은 ‘몽산포-청포대 구역’으로, 랜드마크의 성격이 대표적인 구역은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으로 분류되었다. 주요 구역별 경관유형이 다르게 구분되는 점을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유형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활동의 성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주요 구역별 경관유형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체험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4-1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유형 분류

구역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활동체험
학암포 구역	●	●	○	○
신두리 구역	●	●	○	●
천리포-만리포 구역	●	●	●	●
몽산포-청포대 구역	●	●	○	●
드르니항-백사장항 구역	○	●	●	○
꽃지 구역	●	●	●	●

(● : 포함, ○ : 불포함)



[그림 4-15]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 유형 분류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대중이 인식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 경관을 도출하고 사진과 함께 작성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경관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부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안경관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해안경관의 유형 및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안경관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해안경관의 개념 및 범위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차이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의 해안경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해안경관의 연구 대상지는 동해, 남해, 제주의 해안경관에 편중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해안 경관연구의 부재를 인식하였고, 서해안 경관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의의와 경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경관연구에서의 소셜미디어 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기존 경관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객의 인식을 파악해왔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계된 조사항목에 따라 피험자의 답변이 유도되는 한계가 발생되며, 방문객의 자유로운 의견을 취합하기 어렵다. 반면 소셜미디어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설계되지 않은 의견과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방문객이 인식하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였다. 서해안 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관련 게시물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태

안해안국립공원의 주요 공간을 선정하였으며, 대표경관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표경관에 해당되는 사진에 함께 작성된 코멘트와 해시태그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주요 경관 및 활동과 선호요인을 정리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체험을 하며 어떤 자원과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6개의 구역이 방문객에게 주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대표경관은 31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31개의 대표경관에 대하여 방문객이 서술하고 있는 의견을 분석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넷째, 방문객의 경관인식과 주요 활동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기반한 경관 유형 분류 틀을 설정하고 CP의 경관유형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앞서 도출한 대표경관 31개에 대하여 경관조망, 공간이미지, 랜드마크, 인간의 활동 4가지의 경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6개의 구역이 대표성을 띄는 경관유형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을 어떻게 향유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행되어 오는 경관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자원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체계적인 경관계획 및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대중이 인식하는 경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의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 도출 및 경관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대중이 인식하는 경관자원과 경관에 대한 인식 및 그 안에서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강조하는 자원이 대중에게는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거나, 반대로 전문가가 지정하지 않은 자원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의 대표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도 발견되었다. 또한 경관자원을 시각적 요소로 구분하는 기존의 경관유형 분류가 아닌 인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관유형 분류의 실시한 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자원은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존 경관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기존 경관연구에서 시행하는 정성적 연구에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측면의 한계점이 해소될 수 있다.

둘째, 대중에게 경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언어적이고 구조적으로 설계된 사항으로, 전문가의 의도에 맞게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는 자발적 참여로 형성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대중의 인식을 그대로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이 인식하는 경관을 도출하였다.

셋째, 경관을 인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기존 경관유형은 시각적 자원에 국한되어 분류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경관사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어 형성되는 특성에 주목하여 체험 기반의 경관유형 분류의 틀을 작성하고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으로써 공간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출현 빈도를 통해 도출된 여섯 개의 주요 공간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가치 있는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거나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 경관이 주요 경관으로 인식되어, 주요 공간에 해당되지 못한 나머지 공간에 위치하는 자원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이는 향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조성한 탐방로의 구간별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전역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와 같은 한계들이 추후 보완됨으로써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체험에 기반한 경관관리 방안 수립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1) 단행본

국립공원관리공단(2017). 2017 국립공원기본통계.

임승빈(1991, 2009). 경관분석론(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 연구논문

고의장, 이승곤(2000).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관광 지형학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34(1): 27-37.

김남형, 강향혜(2007). “SD 척도에 의한 해안경관평가,” 『대한토목학회』, 3136-3138.

김예림, 손용훈(2017).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1): 105-116.

남민지 외(2015).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감정 분류 방법,”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8(11): 1391-1399.

박명희, 양승우(2014). “인터넷사진을 활용한 서울 도심부 경관자원 및 조망점 분석,” 『서울도시연구』, 15(1): 51-68.

박민영, 박경(2017). “인스타그램 해시태그(Hashtags) 분석을 통한 방문객들의 지오사이트 인식에 대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24(1): 93-104.

노영란 외(2008).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물리적 구성요소 개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4): 167-174.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48.

윤상호(2007). “경관법 제정에 따른 연안경관관리 시급,” 『월간 해양수산』, (279): 1-5.

_____ (2007).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20(3): 51-75.

- 이석환(2010). “일본 해안경관 형성과정의 메커니즘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0): 3974-3981.
- 이숙향(2015). “한려해상국립공원 경관자원 목록화 및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9(1): 55-63.
- 이영진(2011). “제주도 영주십경과 신(新) 영주십경의 경관자원 평가-구글어스의 사진 위치 정보 활용-,” 『관광연구논총』, 23(2): 41-56.
- 정기주 외(2011).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관련 연구의 분류와 연구 동향,”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지논문지』, 6(5): 82-94.
- 정태일, 오덕성(2003).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10): 111-120.
- 홍석환, 김충식, 류정상, 김지석(2014). “경관자원 가시도가 탐방로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8(2): 253-262.

(3) 학위논문

- 구본아(2008). 부산 해안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영(2002). 부산의 해안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란(2008).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안식(1987). 항구도시의 해안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부산시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갑진(1995). 해양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정(2001).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제이(2013).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연구-장소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대규(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찬민(2011). 해안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관동팔경 중 망양정,
월송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원정(2011). SNS 관광정보가 지역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연구보고서

DMC 리포트(2017). 2017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

강릉시(2003). 심곡·금진지구 해안경관형성계획 수립 연구.

강원도(2008). 동해안벨트 경관형성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장소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 정보 활용방안.

경기연구원(2015).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경기도 관광 트렌드 연구.

경상남도(2010).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국립환경과학원(2007~2008).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10). 찾아오기 위한 해안을 만들기 위한 해안경관 조망점 조성방안 연
구.

국토해양부(2011).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201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전라남도(2008). 섬경관형성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2012). 빅데이터 시대! SNS의 진화와 공공
정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3).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1). 연안경관 유형분류와 관리제도 분석 연구.

해양수산부(2002).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환경부(2004).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5) 홈페이지 및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립공원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iloveknp>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해변길

<http://www.knps.or.kr/portal/dulegil/haebyeongil/index.do>

■ 국외문헌

- Boris T. van Zanten et al.,(2016). Continental-scale quantification of landscape values using social media dat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46): 12974-12979.
- Boyd, D. and Ellison, N.(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Dewing, M.(2010). *Social media: An introduction*. Ottawa, Canada: Library of Parliament.
- Dunkel, A. (2015). Visualizing the perceived environment using crowdsourced photo geodat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42, 173-186.
- Ellison, N. B., & Boyd, D.(2013). *Sociality through Social Network Sites*. In Dutton, W. H.(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et Studies*(pp.151-17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 M. et al.,(2001). Guide to Best Practice in Seascape Assessment. *Maritime Ireland/Wales INTERREG Report*, Marine Institute.
- Kaplan, A. M., & Haenlein, M.(2010). Users of the world, unit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53(1): 59-68.
- Murthy, D.(2013). *Twitter: Social communication in the Twitter age*. Cambridge: Polity.
- Manikonda, L. et al.,(2014). *Analyzing User Activities, Demographics, Social Network*

Structure and User-Generated Content on Instagram.

O' Reilly Radar Team(2012). *Planning for Big Data*, O' Reilly.

Trottier, D and Fuchs, Christian (2014). *Theorising social media, politics and the state: an introduction*. In: *Social media, politics and the state: protests, revolutions, riots, crime and policing in the age of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Routledge Research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ety. Routledge, New York, pp. 3-38.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Landscape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in Social Media**

Sung-hee,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Yong-hoon, Son

Since the legislation of 『Landscape Act』 in 2007, the world of the landscape in South Korea has been allowed to plan and apply the landscape that incorporates the natural environment, historical culture, and living space based on the legal foundation. From this time on, explicit management on landscape began. Nevertheless, because 『Landscape Act』 mainly concerns the management of urban area landscape,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natural landscape are still relatively meager compared to that of the urban area landscape. In addition, the research on landscape resources has been conducted on the level of a status survey or select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experts. Moreover, the scope of the previous studies on landscape resources has been limited to surveying and seeking management strategies only pertaining to visible resources although landscape comprises many layers including the viewed object, the viewing entity, and experience activities. Consequently, the experiential landscape perceived by people has rarely been studied in comparison.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landscape study using social media as a way of remedying the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ddresses the need for multilateral landscape research by combining the analysis of visual landscape images with analysis of text about the

image as well as the user's behavior. In addition, this study recognized that systematic landscape planning and sustainable landscape management requires an analysis of the landscape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and their perception. One characteristic of social media is sharing with others one's emotion from certain experience or one's subjective view of objects or phenomenon. Based on this characteristic, the present study aimed to analyze social media to discover how people behave and what they experience and enjoy around a scenic landscape.

This study selected Taean Coast National Park as the research target; elicited typical landscape points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that the public recognizes on Instagram. Then this study elicited the landscape resource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manifested in social media by classifying the landscape types in Taean Coast National Park based on the analysis of text description of the uploaded images.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derived four implications.

Firs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the coastal landscape, this study organized the types and components of the coastal landscape, and defined the concept of the coastal landscape that this study aims to cover. Although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coastal landscape were mentioned in many studies, this study has re-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coastal landscape because of the discrepancy in concepts between the studies.

Second, through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on the landscape in terms of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social media, this study addressed the need for analysis of social media in the field of landscape study. Previous landscape studies have used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o understand the visitor's percep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llect visitor's unsolicited opinions because a questionnaire survey is limited in that the response of the survey participant is induced according to the

survey items that were designed in advance. By contrast, social media encourag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m voluntarily; thus, it is advantageous because unsolicited opinions and perception on landscape can be examined without adding or subtracting any content.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landscape resources and characteristic of landscape perceived by visitors in a certain area as shown in social media. Through text analysis of the relevant posts on Instagram,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erception of visitors to Taean Coast National Park. Based on this, primary attractions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are selected, and representative landscape points were extract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comment and hashtags posted along with the photos of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this study extracted keywords and organized the main landscape, activities, preferred factors so as to investigate what the visitors experience in the space and what resources and element they value. This study discovered that Taean Coast National Park has six areas that are perceived to be primary attractions by visitors. A total of 31 landscape points that belong to these areas have been extracted.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visitors' description and opinions about these 31 landscape points and derived the perception of landscape in Taean Coast National Park.

Fourth, this study analyzed the visitor's perception of the landscape and their main activities; then established the criteria of landscape type classification based on people's activities and categorized the CP (Consensus Photograph) landscape. Accordingly, with regard to 31 landscape points previously derived, the landscape types were divided into landscape view, space image, landmark, and experience. By analyzing six representative landscape typ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visitors enjoy the landscape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in terms of activities.

To sum up, the present study remedied the limitation of previous landscape studies and recognized the need for research method of

studying landscape resources that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premise that multilateral analysis on the landscape perceived by the public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a systematic landscape planning and sustainable landscape management strategy, this study extracted the landscape resources of Taean Coast National Park manifested in the social media, which is operat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ducted an analysis of landscape feature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ublic's perception of landscape, targeting the six main spaces. With regard to this, future studies can investigate the entire Taean Coast National Park by performing an additional research by trail section that runs through Taean Coast National Park. This has significance to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for Taean Coast National Park. Furthermore, by applying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e present study to a study targeting many area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experience-based landscape management plan as a baseline study.

Keyword : Landscape Resources, Consensus Photograph(CP), Landscape Perception, Public Perception, National Park, Taean, Social Media, Instagram, Big data

Student Number : 2016-24846